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행인 박필수
편집인 겸 주간 지재운
편집장 문정환
외대신문사(☎직962-7128교965-7001)
외대학보(☎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창산리
인쇄인 김영로

제512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4월 4일 (화요일)

용인, 「학제개편위원회」 발족

지역학문제등 전담하는 학생대표기구

학교·학생간 대화통로마련, 공청회·설문조사 예정

「지역학 제도」도입 문제의 학생측 대표기구인 동·서양어문대 「학제 개편 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금)오후2시 교양학관 301호에서 교수·학생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되었다.

이날 발족식에서 「학제 개편 위원회」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동·서양어문대 3천5백여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로 수렴, 학교측과 논의를 통해 가장 적절한 지역학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며 준비위원장인 동양어문대 학술부장 김태민군(마인이3)은「우선 위원회의 첫사업으로 4월초에 교수, 학생 그리고 관련학과 대학원생등이 참가하는 「지역학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와 각과·학년별 지역학 문제를 분석하게 될 설문조사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설〉 지난해 학원민주화 사업때부터 중복학과의 문제점 극복과 어문학 커리큘럼 탈피, 독자적 학문발전등을 위해 지역학제도 도입은 학생들로부터 강력하게 요구되어왔다. 학교측도 이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 2월 23일(목) 지역학제도 도입문제와 동구어과 단대 분리문제등의 연구·검토를 전담하는 「교육개선 위원회」(위원장 최창성교수·태국어)를 전문위원3인과 각단대 학장보등으로 구성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동·서양어문대 학생회장, 학술부·차장 그리고 각대학 7개씩인 중복학과 위원 1명등 총20명으로 구성된 「학제개편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공식적인 학교, 학생간의 대화통로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학 도입문제에 대한 연구와 방안 모색등이 한층빠르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용인 제6대 학연출범

대중적 학생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할터

용인캠퍼스 「제6대 학회연합회(이하 학연)출범식」이 지난 3월31일(금)오후 3시 학생회관앞 5·18광장에서 신임 학연장 조원식군(서문·독이4)과 총학생회장 윤원철군(사회·경제3), 각 단대학연장등 7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시낭독, 노래합창등 각 학회 축하공연후 학연장 인사말, 고사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서 제6대 학연장 조군은 출범사를 통해 「학연의 당면목표인 산적한 복지문제해결, 문예학회회 활성화등을 위해 노력할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자주적·대중적 학연건설과 반 외세·반 독재투쟁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군은 지난 3월22일(수) 실시된 제6대 학연장선거에서 단독입후보해 찬성22표, 무효1표로 당선된 바 있다.

서우회「정기임시전」 오는7일까지 열려

서울·용인캠퍼스 서예반 「서우회」 주최 「제6회 정기 임서전」이 어제, 오늘(4일)용인캠퍼스 학생회관 전시실과 휴게실에서, 오는 4월6일(목)과 7일(금)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에서 각각 개최된다.

「서우회」홍보와 가을 작품전 대비를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되는 작품은 전통표현기법인 해서, 예서, 전서등을 모방한 45점이다.

외대연극회 정기공연 「국어로는아름다운나라」

서울캠퍼스 외대연극회 제42회 정기공연 「국어로는 아름다운 나라」가 지난 4월1일(토) 6회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오연호작 「식민지 아들얘게」를 희곡으로 공동창작한 이 작품은 해방후 남원지역에 들어온 미군의 횡포를 내용으로 반미자주화 인식을 주제로 하였다.

민중 연대대책위원회 「노정권타도 결의대회」가져

「현대중공업 탄압분쇄 및 민중생존 압살하는 노태우정권타도 결의대회」가 민중연대대책위주최로 지난 3월31일(금)오후 3시30분본관앞집회로에서열렸다.

1백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참가학생들은 「민중운동 탄압하는 군부파쇼 타도하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권력이라는 미명아래 현대노조협재의 정당한 투쟁이 폭압받고 있는 지금, 결연히 일어서 군부파쇼와 독점재벌타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노동자 학생 연대하여 노동해방 앞당기자」 「폭력테러 식칼만행 정주영을 처단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동안 전경과 대치하며 격렬한시위를 벌였다.

직원노조파업일단락

지난 30일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가

단일호봉제·인사위원회등 9개조항 합의

「직원인사위원회구성」「단일호봉제」「임금인상」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월)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직원노조가 29일(수)정점사항에 대해 학교측과 최종합의를 하고 30일(목)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노조문제는 전면파업이후 5차의 단체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사단체협약서」에 노조·학교측이 합의함으로써 해결된 것이다.

최종합의된「노사단체협약서」는 ▲도서관 용원직의 용원화계획 백지화 ▲제단과 학교 상호 직원인사교류 불허 ▲장단기발전계획수정·보완 ▲대학민주발전추진위원회구성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요구조항중 쟁점이 되었던 단일호봉제는 89년3월부터 실시하며 임금인상기준은 근속연수, 군경력, 학력간격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전체급여액은 노사협의를 통해 타대학 평균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직원인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총무처장, 위원은 용인총무처장, 직원노동조합장이, 나머지 4인의 위원은 사무직원중 총장이 임명하기로 (단 위원중 1인은 노조조합장이 추천)합의하였고 직원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은 89년 4월21일(금)까지 제정하며 부서기, 부치장직급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들 위해 현재 총무·기획·예산과장등 학교측 대표3인과 노조측 대표3인이 실무위원회를 구성, 조사·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니온샵은 차기단체협약시 제론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번 노조문제타결에 대해 김동욱 사무국장은 「표면적으로는 요구조항이 합의 되었지만 앞으로 학교측의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인 자세가 더욱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관 개관식 가져

좌석확충, 방음시설 설치

도서관이 지난 3월30일(목) 오후2시 서울캠퍼스 정재원 총학생회장(일어4), 이창복 총무처장(독일어과)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1, 2층을 제외한 나머지 3, 4, 5층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서대출은 1층의 공사와 무관하게 4월1일(토)부터 실시하고 있다.

3월13일(월)부터 시작된 도서관공사로 8백석의 좌석이 확충되었고 바닥, 창문등의 방음시설이 새로이 설치되었으며 도서의 도난·분실방지를 위한 전자감응장치도 오는 4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계속전진, 투쟁하라 애국외대여

서울「제1차 정기 학생총회」열려

▲지난30일(목) 연수관앞 광장에서 있었던 투쟁 보고발대식 및 학생 총회 모습

서울캠퍼스 「제1차 정기학생총회」가 「민족자주기치아래 단결총학 일원안고 계속전진, 계속 투쟁하자」란. 기치로 지난 3월30일(목) 오후4시 1천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연수원앞 해방광장에서 개최되었다.

학생회 사업노선, 사업계획및 일정, 부서별 계획보고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총학생회는 앞으로의 사업목표를 발표하며 ▲광주학살 부정비리 노태우 정권퇴진투쟁 ▲반미 조국통일 대중적 전개 ▲민중 생존권 재원 연대투쟁의 강화 ▲중통의대·복지의대의 건설 ▲기층단위 학생회의 강화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정재원군(일어4)은 학생회 사업노선보고를 통해 「88년 학생회 사업은 장기적 전망이 부재하고 사업의 성과가 학생회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민중생존권 지원 연대투쟁에 소홀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학생회는 외대인 모두가 참여하는 자주적, 민주적, 공개적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총학생회장 김시선군(법학4)은 등록금인상 및 주야통폐합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통해 「등록금 7%인상은 학내공사를 따내기 위한 협상물이 아니라 학교발전을 위한 물적토대」이고 「주야통폐합에 따른 여러문제는 학교측의 사전대책부재에 기인하지만, 파차원의 적절한 해결책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시적 투쟁체인 「애국외대투쟁본부」건설이 특별안건으로 제기돼 현장에서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89학년도 상반기 총학생회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4월17일~21일:4·19계승주간 △5월15일~19일:5·18광주항쟁계승주간 △5월22일~26일:이문대동제 △6월7일~10일:6·10계승주간 △7월1일~8일:평양청년학생축전

서문대 서반아어과 「피의결혼」원어공연

서양어문대 서반아어과 원어연극반 「MUSA」는 오는 4월4일(화) 오후4시 용인캠퍼스 대강당, 7일(금)오후7시와 8일(토) 오후4시30분 서울캠퍼스 대학원 강당에서 「제3회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오는 5월13일(토)오후2시와 오후 4시30분 부산외국어대학 소극장에서도 공연할 예정인 이번 원어연극은 스페인 민중시인 겸 극작가인 「페데리꼬 가르시아 로르까」원작「피의 결혼(Bodas de Sangre)」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된 한 여인의 비통한 종말을 스페인 내란에 빗대어 그린 작품이다.

한편, 오는 8일 대학원 강당 공연에는 스페인 대사를 비롯 중남미 수개국대사등이 참관할 예정이다.

행동일지

▲공안합동 수사본부 발족
—칼퀸 강도보다 돌연학생이 중죄

▲직원노조 점상업무 들어가
—비온 뒤에 땅은 더 탄탄해져

▲울산, 규탄시위 연일 계속
—밟으면 밟을수록…

4·3전설과 권선징악

▲고을마다 구전(口傳)되어 전해내려오는 전설(傳說)들은 신비한 내용이나 깜짝 놀랄만한 사건, 역경과 고난등을 즐거리로 하고있다. 또한 하나같이 권선징악(勸善懲惡)으로 끝나, 식상하지만 변할 수 없는 선의 승리를 전해준다.

우리가 알고있는 전설 중에는 제주도에 전해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다. 게다가 이 전설은 전설화(?)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아직도 그 내용조차 왜곡되고 있는 전설이기도 하다.

▲사실, 1948년 「제주4·3민중항쟁」은 전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백한 역사속의 한 정점이다.

미군정기, 일제를 대신해 이 땅을 점령한 미국과 친미반동세력의 반민족·반민중·반민주 전략에 항거, 제주도에서 활화산처럼 타올라 「5·10단선, 단정 결사반대」 「미제타도」「매국노처단」등을 외쳤던 4·3민중항쟁.

그러나 이 항쟁은 미제와 그의 주구들에의한 8만여 양민학살 속에서 처참히 짓밟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당하고 올바른 평가는 고사하고, 항쟁에대한 시나소설, 연구등은 고문, 제포, 징역등으로 대체되었다.

위정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만큼, 4·3은 무자비한 탄압속에서 마치 전설처럼 그 실체를 도둑맞아 버렸던 것이다.

▲그로부터 41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전설은 살아 꿈틀대기 시작하있다.

지난 4월1일 제주도에서는 4·3항쟁 희생자에대한 추모제가 열렸고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를 4·3 추모기간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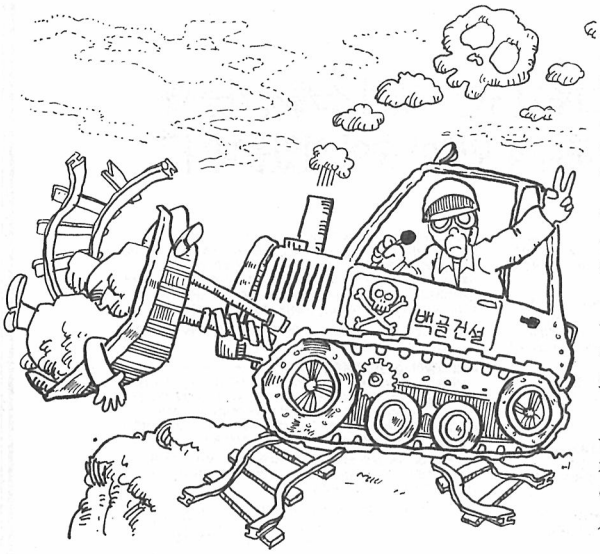
41년이 지난 지금에야 4·3은 아픈 역사의 한 조각으로 그 실체를 중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진건 엄청난 물리력밖에 없는 노정권은 습관(?)대로 「4·3추모 및 범도민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원천봉쇄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분명 4월은 왔지만 4월의 머리결에서 묻어나오는 것은 봄내음이 아닌 넋의 넘새, 피비린내뿐이다.

고작 41년이 지난 지금에야 「1회추모제」를 열 수 있는 이 나라를 슬퍼하자. 그리고 모든 「전설화」의 기도속에서 그 결말은 늘 「권선징악」이었음도 기억하자.

백번 식상해도 좋을 선의 승리는 승리의 대상을 찾아 분노를 던지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4·3의 장본인인 미국과 그의 꼭둑각시가 아직도 창란의 춤마당을 벌이고 있는 이 나라에서. 〈권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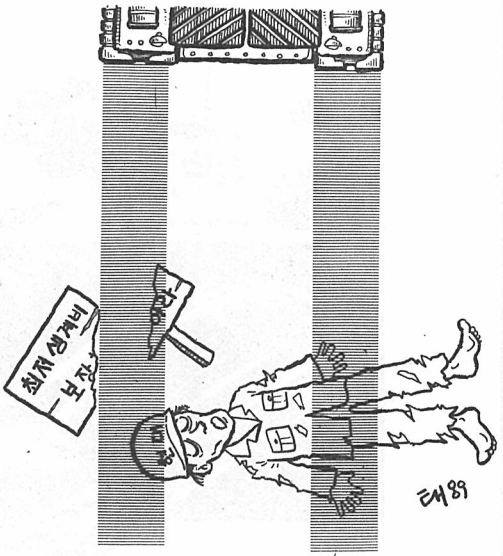


내가 외쳤을때
내 입은 봉해졌고
메아리쳐 온 허망한 상처뿐이었다.

내가 뛰어가 부딪쳤을때
장벽은 끄덕도 하지 않았고
동료들은 차갑게 피를 닦아 주었다.
· · · ·
우리들은 또다시 전열을 추스리며
수없이 불어난 동지들과
탄탄한 연대 위에서
· · · ·
살덩이로 불꽃으로 불도자로
갈수록 무겁고 힘찬, 치밀하고 확실한
노동자의 전진을 내어 딛는다.

우리들의 숙명인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이 사라질 때까지
억압과 착취와 분단의 장벽이
사라질 때까지

〈박노해의 시 「장벽」중에서〉



외 대 학 보

사설

문목사 판문점 통과 불허를 보며
-반외세 자주화 없이 통일은 불가능

지난 3월26일에 있었던 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은 분명 우리모두의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쫓기고 갈라진 상존의 역사 45년만에 처음인 순수한 민간인 교류이며, 이번 남북통일 방안모색을 위한 문목사의 방북으로 한민족의 미완인 통일의 그날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것만 같은 흥분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의 사전승인없이 취한 행동으로 국가보안법의 탈출·잠입죄라며 문목사의 방북을 실정법 위반행위로 구속처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속조치 운운은 노태우가 7·7선언에서 밝힌 남북민간인교류의 활성화가 얼마나 허구적이었나를 단적으로 웅변해주는 것이므로, 굳이 헌정부가 민족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음은 재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통일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이다.

문목사의 판문점통과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쪽관할 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할 경우, 주한미군의 통과저지만 없다면 정부의 통제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지난 3월 16일 전대협의 「남북학생실무회담」을 위한 판문점통과 불허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목사의 판문점통과승인을 현정부의 관할로 돌리고 있다.

지난 8·15통일운동 이후 높아진 반미 감정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은 판문점 유엔군 관할지역의 관할권을 한국에 넘기고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도 한국군장성으로 하는 문제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현정부가 미국의 폭독자시인 상태에서 관할권이 한국군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불안한 위치에 놓인 미국의 가시적인 위장전술일 뿐이다.

그러한 사실은 지난해 6월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에서도 드러난다. 이 성명서에서 미국은 「정전협정유지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지속」을 강조하며, 정전협정의 존속을 강력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교류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견해를 존중한다는 식의 시혜적(?) 태도는 세계평화라는 허울좋은 가면을 쓴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 안정화를 위한 공작이 아닐 수 없다.

한민족이라면 누구나가 자유롭게 오고 가야할 땅 한반도에서, 당연히 반외세자주화 통일을 염원하는 4천만 민중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우리땅 판문점을 통해 당당히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목사는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올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와같이 끝내성취되지 못한 판문점통과문제는 분명 정전협정이 남북통일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 정전협정의 체결 장본인이 미국이며 실권자 또한 주한미국 사령관인 현상황때문인 것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반외세 자주화의 무쟁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기에 충분하다.

중간평가 연기, 어떻게 볼 것인가

최 은 주
〈자유언론 기자〉

「정치쇼」로 막 내린 중간평가

지난 3월 20일 노태우는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간평가를 무기연기, 아니 사실상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그동안 중간평가를 둘러싸고 무수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신임을 연계하느니 마느니, 단순정책평가로 하느니 마느니,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한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제각각 다른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고 신문들은 실시자체가 불확실하고 실시의 방법, 시기, 내용등 어느 것 하나 확정된 바가 없었음에도 연일 중간평가와 관련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결국 중간평가는 무성한 말잔치에 놀아나다가 막을 내려버린 셈이다.

중간평가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탈환하겠다고 호언하던 민정당과 노태우는 왜 연기조치를 발표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5공청산,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밀릴대로 밀린 여권이 「대국민약속」을 빙자하여 「정면돌파」로 정국 개편을 이뤄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유포시켜 이를 통해 야권의 분열을 유도하고 대야협박, 대국민협박을 일삼아오다가 결국 불확실한 정면승부보다는 4당체제 유지속의 대타협이라는 우회전술을 택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중간평가를 놓고 이러구 저러구하긴 했지만 내심 민정당은 중간평가 실시를 피하고 싶었다는 얘기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어렵게 따낸 대통령자리를 내놓고 모험을 하겠는가. 노태우가 중간평가 연기의 명분으로 야권분열을 들었다는 사실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유례없이 단일한 사안에 야권은 현저한 입장차이를 보이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결국 야당은 노정권의 고도의 술책에 말려들어 노정권퇴진투쟁의 중요한 계기였던 중간평가를 유실시켜 버린 것이다. 노정권은 이번 중간평가 연기조치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자칫 중간평가를 통해 야당까지 포함하는 반노태우국민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며 제1야당인 평민당과의 밀담으로 연기와 5공청산, 광주학살 진상규명의 적당한 처리를 맞바꾸는 성과를 올렸고, 야당의 공조제기를 흔들고 제야와 구분시켜 제도내로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사실 야당들이 제각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신임이 걸린 중간평가가 치루어진다면 강력한 쟁점을 선언한 「전민련」, 「전대협」등의 「노태우정권퇴진 공동투쟁본부」와 민주당, 여기에 평민, 공화까지 가세할 것이고 각계각층 민중의 투쟁으로 노정권 반대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선거전이 수월치않을 것이며 설사 승리한다해도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될 것이라는 인식도 연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번 중간평가 연기조치에 야당들은 커다란 기여를 했다. 중간평가가 정상적으로 치루어졌다면 당연히 노정권의 퇴진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야당들은 노정권을 구원해 준 셈이다. 중간평가 무용론까지 들고나왔던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중간평가 연기조치가 발표되자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어려운 시련이 있었으며 내가 쉬지않고 노력했다」고 자신의 공을 치하하고 「이번 연기조치는 파국을 피하기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정치사에 획을 긋는 하나의 정치 예술작품」이라고 연일 자신의 이번 중간평가를 통해 여권이 생사를 걸고 달려들면 자칫 좀더 얻으려다 모두 잃는 결과가 될 것을 내심 우려해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민정당이 승리할 경우 예상되는 민정당의 주도권 확보와 그로인한 야권의 입지축소는 그들에게 결코 달가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명분만 주어진다면 중간평가를 피하고 싶은 것은 여야야 대동소이했다. 특히 평민당의 경우 노정권과의 협상을 통해 전두환, 최규하의 형식적인 국회증언추진, 야당이 저목한 사법처리 대상중 여권에 낼로 부담이 안되는 인물들은 사법처리, 이원조, 정호용은 공직사퇴로 처리한다는 선에서 광주, 5공문제를 마무리짓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라는 선물을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신빙성을 더해 가고 있다.

5공청산, 광주문제 등 해결 더욱 어려워져

중간평가는 결국 여야의 타협에 의해 무산됐다. 이번 중간평가 무산은 단순히 「실시하려다가 말았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의 정치권의 정기적인 구도인 보수연합이 서서히 내용적으로 관철되고 있는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문익환목사의 방북에 대해서 민정당과 정부가 살판났다고 묵정을 돋우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중간평가에서 노정권불신임투쟁을 선언했던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자청, 문목사의 죄인몬을 들고 나오면서 보수야당의 색깔을 분명히 했고 이정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평민당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문목사 방북을 계기로 야당들의 보수색깔을 분명히 해서 민족민주운동권과의 분리를 선언케하여 타협과 탄압의 칼을 휘둘러 대타협을 성사시켜 버릴으로써 이후로 5공청산,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비롯 각종 악법의 개폐 등 산적한 정치적 과제들의 실행이 어려워질 것이다. 중간평가가 취소되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특위는 공중분해됐다. 부실기업 청문회는 효지부지 되었고 의문사와 종교탄압의 진상을 규명한다던 인권청문회도 무산되었다. 전두환, 최규하의 국회출석 증언도 여전국구도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우선 야권이 여권과 대타협을 성사시켜 버릴으로써 이후로 5공청산,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비롯 각종 악법의 개폐 등 산적한 정치적 과제들의 실행이 어려워질 것이다. 중간평가가 취소되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특위는 공중분해됐다. 부실기업 청문회는 효지부지 되었고 의문사와 종교탄압의 진상을 규명한다던 인권청문회도 무산되었다. 전두환, 최규하의 국회출석 증언도 여전

노정권, 문목사 방북으로 이데올로기적 공세 강화

노태우는 20일 담화에서 「중간평가를 둘러싼 논의 현실은 그 본래의 뜻과는 달리 새로 열린 민주질서의 정착을 위태롭게 하고 나라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중간평가 연기의 배경을 말하면서 「좌익폭력세력이 중간평가를 체제전복의 발판으로 삼아 폭력과괴행위를 격화하고 있다」고 기회있을때마다 되풀이 해온 좌익폭력세력 운운을 반복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전환기적 현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로 사회와 나라가 뒤집어질 듯 시끄럽게 될 때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투표결과 여야를 떠나 국민에게 이처럼 부담과 불안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믿고있다」고 말해 국민을 끔찍이도 아끼는 대통령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러한 노태우의 단호한 의지는 그 이튿날 동시에 들켰다는 것이다.

문목사가 방북하자 「그가 고문으로 있는 전민련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방언해 「전민련」과 연결시켜 이데올로기공세를 예고하는가 하면 문목사의 정양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트집잡아 마치 문목사가 북한을 찬양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방북했을 때와는 다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문목사의 방북과 관련해 언론은 세상 난리가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있다. 신문지면을 온통 방북기사로 실어대면서 국민의 관심을 고의로 유발시켜 관제언론의 구실을 톡톡히 하고있다. 언론과 민정당, 정부가 박자를 맞춘 이런 연출은 5공청산, 광주학살 진상규명의 문제를 은폐하고 보수야당들을 제도내 파트너로 위치지우고 해묵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부활시켜 정권안보를 기하겠다는 술책이다.

노태우의 중간평가연기, 불안한 정면승부보다 4당체제 유지속 보수대타협으로의 우회전술
기만적 「안정」논리로 민민세력에 대한 물리적탄압강화

통해 전두환, 최규하의 형식적인 국회증언추진, 야당이 저목한 사법처리 대상중 여권에 낼로 부담이 안되는 인물들은 사법처리, 이원조, 정호용은 공직사퇴로 처리한다는 선에서 광주, 5공문제를 마무리짓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라는 선물을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신빙성을 더해 가고 있다.

5공청산, 광주문제 등 해결 더욱 어려워져

중간평가는 결국 여야의 타협에 의해 무산됐다. 이번 중간평가 무산은 단순히 「실시하려다가 말았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의 정치권의 정기적인 구도인 보수연합이 서서히 내용적으로 관철되고 있는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문익환목사의 방북에 대해서 민정당과 정부가 살판났다고 묵정을 돋우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중간평가에서 노정권불신임투쟁을 선언했던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자청, 문목사의 죄인몬을 들고 나오면서 보수야당의 색깔을 분명히 했고 이정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평민당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문목사 방북을 계기로 야당들의 보수색깔을 분명히 해서 민족민주운동권과의 분리를 선언케하여 타협과 탄압의 칼을 휘둘러 대타협을 성사시켜 버릴으로써 이후로 5공청산,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비롯 각종 악법의 개폐 등 산적한 정치적 과제들의 실행이 어려워질 것이다. 중간평가가 취소되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특위는 공중분해됐다. 부실기업 청문회는 효지부지 되었고 의문사와 종교탄압의 진상을 규명한다던 인권청문회도 무산되었다. 전두환, 최규하의 국회출석 증언도 여전히 정치적 홍정에 묶여있다. 특별검사제도도 실종됐다. 5공청산 광주문제의 정치적해결이라는 명분아래 실제의 원흉은 버젓이 있는데 이원조, 정호용의 공직사퇴라는 여·야의 합의선도 여권내 강력한 반발로 실현가능성이 클 것 같지 않다. 중간평가 연기조치 이전과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유실돼 버린 것 같다. 국민들의 무쟁에 의해 조성된 모든 것들이 말이다.

미네르바

부자들의 도둑겔

▲감히 말하건대, 「부」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훔치는 일」이다.

오늘날 재벌이라고 일컬어지며 무한한 자본을 움켜쥐고 정계와 경제계에서 거대한 「만능열쇠」를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훔치는 일」의 전문가이다.

양복을 차려입고 책상에 앉아, 도장과 만년필을 쥐고 몇가지 서류를 조작하는 일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약간의(?) 거짓말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일은 고상하면서도 고수익을 보장시켜주는 「안정사업」이다. 바로 이 합법적인 「훔치는 일」이 지금 우리 머리위에서 알알이에 벌어지고 있다.

▲「모든 매음(賣淫)과 음주벽, 탈선은 부자에게는 특권이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범죄였다」는 토마스 울프의 말은 「돈」이 얼마나 가진자들의 편인가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과거 네로황제로 대표되는 가진자들의 방탕한 생활과 현재 자본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향락풍조는 돈의 역사가 부자들에게 있어 파시와 사치, 향락의 역사였음을 알려준다.

이렇듯 가진자들의 향락을 보장하기 위해 당시의 민중들이 얼마만큼 희생되어왔는가는 굳이 댈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부자」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부러움의 시선은 실로 대단하며, 그들에게 있어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열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누구나 「가난뱅이」가 되기보다는 「부자」가 되길 원하며 만능열쇠를 갖고 싶어한다. 또한 한푼이라도 더 저축하려하고, 한시간이라도 더 일을 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발버둥친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구조 속에서, 이미 「자본」의 성을 굳게 쌓아놓은 부자들은 「가난뱅이」들에게 만능열쇠를 절대로 내주지는 않는다.

이땅의 민중들에게 되풀이되는 가난은「부자」가 존재하는 이상 필연이 필수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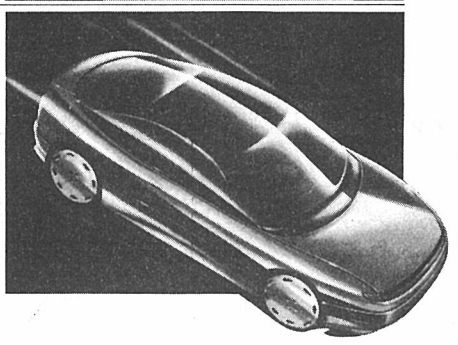
▲가난한 사람들의 「도둑질」에는 가혹한 형벌이 가해지고 부자들의 「훔치는 일」은 장려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더이상 또하나의 도둑놈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 노동의 대가를 도둑질당하고 행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는 일이다.

그리하여 「훔치는 일」이 용납되지 않는, 「도둑놈」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손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일〉

우리 손, 우리기술로 세계제일의 자동차를 만든다 1



"꿈을 꾸면서도 그렸던 3만 여장의 스케치 가운데 우리가 찾던 단 하나의 모델이 숨어 있었읍니다."

'카 디자이너'라는 이름의 직업
'카 디자이너' 김홍식 -.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디자인부에 입사해 처음 명함을 받아들었을 때 그토록 생소하게 느껴지던 이 직함이 이제는 나의 생활과 꿈을 가장 잘 대변하는 친숙한 이름이 되었읍니다.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 한 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3만여개의 부속이 결합되는 '종합의 과학', '총체의 예술'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잘 조화되어야만 합니다. 미적요인은 물론,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의 기본요인, 기업의 미래와 사상을 담는 기업요인, 사회적 흐름을 감지해야 하는 사회요인, 그리고 소비자의 취향까지 생각해야 하는 세밀한 검토와 기획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카 디자이너'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강한 호기심과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조력과 표현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일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읍니다.

한국의 정신, 조국의 꿈을 담은 '쏘나타'
카 디자인의 첫단계는 아무런 제약없이 자동차의 형태를 자유롭게 그려보는 프리스케치(Free Sketch)에서 출발합니다. 새로운 모델을 꿈꾸며 밤낮없이 그렸던 3만여장의 스케치를 통해서 얻은 쓸만한 몇개의 모델을 가지고 비로소 구체적인 구상에 들어갑니다.

이미지 설정작업에서 스타일을 결정한 후 아이디어를 추가해가는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Rendering : 실차와 똑같은 리얼리티를 부여한 실물의 1/5 크기의 그림작업), 스케일 모델(Scale Model : 렌더링 도면을 입체적 검토를 위해 같은 크기로 조형), 테이프 드로잉(Tape Drawing : 스케치를 1/1 크기로 구현하는 작업) 유 거쳐 클레이(Clay : 연하고 가변성이 높은 점토) 모델의 실물크기 제작에 들어가는 대까지가 자동차의 외형에 주로 관계되는 익스 테리어 디자인입니다. 클레이 모델은 다시 레진(Resin : 모형자동차) 작업을 통해 최종 모델로 완성됩니다. 모든 자동차의 디자인은 이렇게 창조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작품이 바로 우리 정신과 꿈을 표현한 21세기 하이테크 세단 '쏘나타' 입니다.

나의 보람이 곧 현대자동차의 미래
'움직이는 미(美)'의 세계를 구현하는 카 디자이너, 다우기 '우리 손 우리기술로 세계제일의 자동차를 만든다' 는 신념에 불타고 있는 3만 2천여 현대자동차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자동차 산업이 앞서야 한다는 막한 사명감으로 우리조국이 세계유수의 자동차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명실상부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 현대자동차!

멋의 예술이요 과학기술의 총아인 자동차 산업에 관심있는 보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눈망울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과 믿음으로 더욱 힘주어 스케치 펜을 잡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 계절 봄의 문턱에 서서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개발센터 디자인부 과장 김홍식

HD 現代自動車

통일조국의 새날을 연다 6

함 운 경
〈민족해방열사 김세진·이재호 추모사업회 운영 위원〉

(1). 머리말

조국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의 자주를 완전히 실현, 남과 북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며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통일문제는 민족내부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강점하여 조국을 분단하였기에 생겨난 문제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대단합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다.

이것은 남과 북의 민족자주세력의 단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외세에 의존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려 드는 것은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 글은 이러한 통일문제의 본질에 입각하여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역량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하여 교훈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로하여 현 시기의 과제를 서술하게 될 것이다.

(2). 통일주체역량 결성의 역사적 경험

우리 역사속에는 남과 북이 던 친일매국노들을 규합하여 반동세력을 육성하였고 일제시대의 법령을 그대로 존속시킨 것에 맞붙여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제, 미군정에 대한 반대 행위를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일제가 소유하던 자산을 송두리째 자신들의 관리로 옮겼다. 이로 인하여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사회진보를 염원하는 민주세력에 비해 반민주세력에게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내용에 따른 통일독립국가실현은 좌절되고 반민주세력과 미국은 매국적인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의 길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파거 반탁을 주도하면서 통일독립국가수립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해 왔던 김구등 반공우익세력을 매국적인 단독선거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게끔 만들었다.

매국적인 단독선거가 일정에 오른 1948년 2월 김구, 김규식, 두사람은 김일성, 김두봉에 보내는 서한을 통하여 남북요인회담을 제안하였고 다시 3월 8일 김구는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 3월 25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는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단체에게 고함」이라는 선언을 채택하면서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이에 3월 29일 한민당을 제외한 남한의 전정당이 남북회담을 지지하고 나섰고 미군정의 반대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4월 14일의 문화인 108인이 연서한 「남북회담 지지」성명등 각계각층의 지지에 힘입어 실행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역사적인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1948년 4월 19에서 23일 사이에 평양에서 열리게 되었다. 참가한 정당·사회단체는 56개에 이르며 참가대표는 6백95명으로서 약 천만명이상의 당원내지 맹원을 포괄하고 있었다. 참가한 정당을 살펴보면 남쪽에서는 민주주의민족전선에 가담하지 않았던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김구의 한국독립당등 여러우정당도 참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매국적인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애국적 정당·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자주적인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때 채택된 「조선 정치 정세에 관한 결정서」를 보면 미·소공위를 파탄시키고 UN총회에 조선문제를 이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우리 조국에서 남조선을 영원히 분리하여 미국 식민지로 전화시키려는 기도의 구현』으로 규정하고 『남조선단독선거를 파탄』시키고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즉시 철거』하고 『조선 인민 자기 손으로 통일적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석회의는 「전 조선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통일·단결하여 투쟁한 고귀한 역사적 경험이다. 남로당이 주도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이 협소한 틀로 말미암아 애국애족적인 세력을 한 두리로 묶어 세울 수 없었던 반면에 연석회의는 애족과 분단에 반대한 모든 민족자주·통일세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

이와같은 성립과정·활동·성격을 갖는 연석회의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로 연석회의는 해방후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반외세자주통일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은 역사적 회의였다. 둘째로 연석회의는 난국에 처해있을 때 분열하지 않고 민족대통일전선을 결성하여 단결투쟁한 회의였다. 세째로 연석회의는 자주·통일운동을 한단계 발전시킨 회의였다.

연석회의의 성과는 단독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승발전되어 민족대통일전선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으로 나아갔다. 1949년 6월16일 결성된 조국전선에는 남쪽의 민주주의민족전선에 가입하지 않았던 24개의 남쪽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로써 조국전선은 미국의 민족분열책동에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진민족적인 결집체가 되었으며 남과 북을 망라하여 투쟁하는 제세력들의 단결된 표현이 되었다. 조국전선이 보여주는 것은 연석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의 민족자주세력이 대단합·대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민족대통일전선으로 나아가는 길

오늘날 민족대통일전선이란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남과 북, 해외동포까지 망라하는 거족적인 정치적 연합을 의미한다. 거족적인 정치연합의 전선은 첫째로 사상과 이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뛰어 넘어야 하며, 둘째로는 온 민족이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어느 계급·계층·개인의 이익은 이에 복속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사상과 이념, 제도와 정견 또는 한계급·계층·개인의 이익을 앞세울 때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은 결성될 수가 없다. 따라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원칙과 사상과 이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인정하는 연방제통일방안에 근거하여 정치적 연합을 실현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현시기의 조건(남과 북에 두개의 사회제도가 자리잡은)에서 가능한 민족대통일전선 결성의 올바른 방도이다.

그러면 이러한 방도에 기초하여 민족대통일전선은 어떻게 건설될 수 있는가를 남북정치협상운동과 남쪽내에서의 민족자주세력의 결집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1. 남북정치 협상운동

분단45년의 역사속에서 남과 북은 정치협상에 관한 수차례의 제안을 해왔었다. 80년대 들어서서 보면 88년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89년의 7인소청회담이 북쪽에서 김일성선년사로 제안되었고 남쪽의 민족민주운동세력에서는 범민족대회를, 남쪽의 정권쪽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제안되었다. 그외 허다한 남북의 국회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 고위급정치군사회담등이 있어왔다.

이러한 남북정치협상과 그 실현을 위한 운동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남과 북을 통틀어서 누가 반통일매국매족적인 세력인가를 확연히 구분해준다. 이것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제안, 추진하고 있는 범민족대회의 저지·방해와 문익환씨의 방북을 둘러싼 반응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대중들에게 실제 상황 전개속에서 통일·자주세력과 반통일·예속세력을 확실하게 교양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앞에서열거한 의의를 살려 남과 북의 민족대통일전선의 대중적 기초를 쌓아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범민족대회의 추진, 7인초청정치협상의 추진 또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이런 점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치협상운동은 대중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각계각층에서 보여온 남북의 자주적 교류운동의 총화는 남북정치협상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런점에 비추어 볼 때 문익환씨의 방북은 남북정치협상운동을 대중적으로 조직해내야할 과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문익환씨의 방북지지성명이 줄을 잇고, 매국매족세력이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로 족쇄채우려는 것에 반대하며 구출하는 투쟁을 전개해야만 할 것이다. 이 투쟁을 통하여 남북정치협상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확보하고 또한 협상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간 진행되었던 농민, 작가, 학생, 예술인들의 자주적 교류운동을 한데 묶어 공동대처는 물론이거니와 이 과정에서 민족자주노선과 정치협상운동전개의 필요성을 확산시켜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 당국자간에 벌어지고 있는 협상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계기로서 적극 활용해야할 것이다. 작년의 남북국회연석회의를 준비하면서 불가침선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불가침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제택에 대한 대중적 압력은 훌륭한 투쟁이었다. 매국매족세력이 주도하는 것조차도 계기로서 활용해야만 대중운동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게 된다.

2. 남쪽에서 민족자주역량의 결집

①역사적 경험

1960년 4·19봉기로 이승만독재체제가 무너진 뒤에 한국전쟁과 전보당탄압이후 살아남은 애국적 역량의 결집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1961년 2월 25일 결성대회를 갖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이다. 민자통은 사회대중당·혁신당·사회당등 3개정당, 천도교·유교회등 종교단체, 만족민주청년동맹·통일민주청년동맹등 청년단체, 기타 4월혁명학생연합회, 교원노조등 여러단체가 가입하여 구성되었다. 이들 세력의 연원은 거슬러 올수 있는 정전상태를 완전한 평화로 전환시켜내는 투쟁(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등)을 전개해 내지 못하였다(비교: 1956년을 전후로 한 남베트남의 운동). 민자통은 들째로 노동자, 농민들 기본군중에 대한 의식화·조직화사업을 등한시한 한계가 있다. 과거의 유산으로서 이러한 민자통은 미국과 매국매족세력을 측출해나가는데는 역부족이었다.

②현시기 과제

현계 남쪽에는 민족자주역량의 집결체로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있다. 전민련은 53년 이후 최대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결들은 시급히 극복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반미자주화로 지향하는 문제이다. 사회의 민주화도 조국분단도 모두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성속화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민자통의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함의 귀결은 자명하다. 특히 89년에는 반파쇼민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의 고양속에서 노태우군정을 끝장내려는 대중들의 열의와 각오가 드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미국식민지배의 핵심인 미군을 철수시켜 내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의 의의는 중대하다. 따라서 반미자주화로 지향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들째로 민족자주세력의 범위를 확대강화해야 한다. 전민련은 아직도 부족하다. 기본군중을 인입하고 각계각층을 공동투쟁의 대열에 합류시켜내는 것은 미국과 매국매족세력의 반동을 막아내고 운동을 한단계 발전시켜 내는것이 사활적과제이다. 또한 민족대통일전선의 결성범위는 기존 틀 이상의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것이며 통일주체역량으로서 남한민족자주세력의 단결은 민족대통일전선결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적요소이다.

현시기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강점에 대한 반미대중의식화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투쟁으로 조직해야할 과제가 있다. 이것은 통일주체역량의 결성·강화에 결정적인 과제인 것이다.

(4). 맺음말

오늘날 통일주체역량은 전에 비할바 없이 발전하고 있다. 올바른 원칙과 방도를 갖고 있는 운동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연방제통일방안은 남북이 각기 다른 사회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현시기에 통일주체역량의 확대에, 그리고 미국과 매국매족세력의 고립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연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을 널리 알려야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된것은 이것이 바로 통일역량의 강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자주적 민족통일전선과 주체역량 결성

— 역사적 경험과 세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현시기 통일전선의 당면과제는 반미자주화의식 고양과 대중투쟁 대열의 확대이다.

반미 대중투쟁의 조직화가 통일주체역량 결성의 과제

민족자주 세력의 총집결체로 민족 대통일전선의 대오를 넓혀야

61년「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는 민족자주적 통일전선체 결성의 역사적 경험이 된다

조국을 분단시키는 외세에 반대하여 민족자주세력이 민족대통일전선을 결성, 단결투쟁한 고귀한 경험이 있다. 1948년 조국이 남과 북으로 영구분단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남과 북의 모든 정치세력은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결집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성립과정, 활동, 성격과 의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945년 일본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이 땅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상륙하여 실시한 미군정은 일본을 추종하

대학써클 순례씨리즈③

우리들은 "톱" 클라이머

우리의 뜨거운 함성을 끝없는 메아리에 담아 널리 널리 온 누리에 우리들의 젊음을 실어 보냈다.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흥얼 거리며 이마에 맺힌 땀을
씻어내고 배낭과 자일을 추스르면서 우리의 정기산행은
시작되었다.
산이 있기에 산에 오른다는 말로리경의 깊은 의미를 굳이
헤아리지 않아도 아름답고 수려한 이 땅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싶어 산악부에 가입했던 우리써클의 클라이머들.
칠흑형의 우렁찬 구령소리에 일사불란한 준비운동을 마치고
한가닥 자일에 젊음을 불사르면서 우리의 암벽등반은 시작되었다.
한 발자욱, 한 발자욱 오를때마다 정상은 가까와지고 서로 연결된
자일에서 느껴지는 선배님들의 따뜻한 정은 발 아래 펼쳐지는
대자연의 파노라마와 함께 무언가 형언하기 어려운 가슴뭉클한
감동이었다.
정상위에 모여서 간단한 회합을 갖고 모두 힘차게 써클구호를
외쳐보았다.
케이—악
우리의 뜨거운 함성을 끝없는 메아리에 담아 널리 널리 온 누리에
우리들의 젊음을 실어 보냈다.
우리의 메아리는 북악골을 넘고 도봉산을 넘어 민족의 영산
백두산까지 힘차게 울려 퍼지리라.
젊음의 패기와 낭만을 하얀거품의 신선한 크라운맥주와 함께
나누며 승오의 유머와 준승이의 묵직한 바리톤에 하산길의
여유를 찾는다.
젊음의 뜨거운 가슴을 붉은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크라운맥주로
시원히 적셔주면서 자! 하나가된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부라보.

K대학교 산악부 2년 장 문 수

크라운맥주

글싣는 차례

1. 통일논의의 올바른 관점정립을 위하여
2. 연방제통일의 불가피성
3. 통일의 선결조건과 각급교류의 문제
4. 연방국가형태와 통일정부의 위상
5. 연방제통일의 이행방도
6. 통일주체역량 결성을 위한 일고찰
7. 정세변화와 통일운동의 현실적 접근

노동탄압 강화하는 중소기업주들

김 동 광

〈노동운동 연합회 정책실 차장〉

1. 머리말

88년 하반기 이후 위장폐업, 휴폐업문제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안 중의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88년에 들어서서 급격하게 추진된 원화절상과 경제개방의 결과,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섬유, 전자, 완구, 봉제, 신발업계와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도산과 조업단축, 인원감축의 사태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88년말 현재 조업단축, 휴폐업 사업장(10인이상)수가 2천2백92개이고, 그중 휴업체는 2백80개, 폐업체는 1백61개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양산업인 「섬유업체」가 몰려 있는 대구지역에서는 89년1월 현재 섬유업체의 1/3가량이 도산하여 1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던, 부산에서는 30여개의 신발업체가 폐업함으로써 4천여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쫓겨났다. 탄광업체의 경우도 정부의 「석탄 실업합리화정책」에 따라 96년까지 전체의 65%인 2백37개 탄광이 폐광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 89년에는 1백22개 탄광이 폐광되고 1만 5천명의 광부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을 올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작년초 중소자본이 노조탄압전술의 일환으로 시도한 바 있는 위장폐업이 인천의 세창물산, 신립섬유, US마그네틱스, 서울의 슈어프러덕츠, 녹십자병원, 협성사, 장우물산, 안양의 서멘트, 광주의 우리데이타, 대구의 삼공전자 등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양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휴폐업, 조업단축, 인원감축은 실업과 해고로 노동자를 내몰아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있는 임금인출투쟁의 열기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민주노조전영의 구성에 있어 중소기업의 노조가 그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휴폐업사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을 정소부터 정권과 독점재벌이 결탁하여 물리적인 폭압을 가하고 있는 현대, 풍산, 모토로라, 지하철의 경우가 주로 대공장노동자에 대한 공세라고 한다면 휴폐업, 위장폐업, 인원감축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폐업을 내걸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공장을 확보해놓고 시설을 이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거나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중인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위장폐업과 더불어 있는 민주노조들을 중심으로 위장폐업 분쇄투쟁이 전개되었다. 주변의 민주노조들의 지원을 받으며 투쟁을 전개하던 위장폐업 사업장노동자들은 「위장휴폐업분쇄공투위」를 구성하여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공동투쟁의 결과 현 정권으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이자 「위장폐업」임을 인정케 하고, 이들 기업주들 입건조치하는 성과를 올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폐업을 철회하지 않은 기업주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과 폐업철회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현행법제도하에서는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위폐공투위의 활동과정은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위장폐업, 휴폐업이 단지 해당 중소기업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탄압과 공격이라는 점, 지역전체노동자 나아가 전국노동자의 투쟁으로 맞서나가야 한다는 점, 휴폐업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현정권에게 있으며, 이는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투쟁의 방향이 휴폐업방지법, 실업법 해고방지법이나 실업연금제 그리고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정책과 제도의 개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해주었다. 또한 현재의 기업별 노조주의의 협소한 틀을 극복하고 전기한 전국적·지역적·업종별 단결을 이룩하는 것이 휴폐업분쇄투쟁을 수행하는 데 효율적이며, 이 투쟁과정 역시 조직을 건설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제 휴폐업, 위장폐업반대투쟁은 이러한 투쟁의 성과위에서 전개될 것이다. 지역적·전국적인 임투와 결합하여, 방산업체파업제한철폐투쟁, 노동운동 탄압분쇄투쟁과 더불어 휴폐업분쇄투쟁은 올 상반기 투쟁의 주요한 축의 하나로서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휴폐업, 위장폐업, 인원감축 등 노동자 탄압전술은 임투의 열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노동자 단결약화와 이윤추구 꾀하는 위장폐업
지역·업종별 조직강화로 탄압에 대항해야

태는 심각한 위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휴폐업사태는 국내의 경제흐름과 결부

한국노동운동은 지난 87년의 대쟁업투쟁 이래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제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을 올 상반기 임투이후 결성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올 임투는 노동자대중의 생존권을 비약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술과 조직적 발전을 목표로 한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만큼 현정부와 자본가들의 대응도 첨등은 중소기업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휴폐업, 위장폐업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돌파하지 않으면 안되는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면 최근 휴폐업 사태가 대량적으로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휴폐업은 자본주의제도 그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다. 보다 고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벌어지는 경쟁에서 수많은 자본들이 몰락하고 성장한다. 더구나 독점재벌을 중심으로 굳건하게 편제되어 있는 한국경제에서는 중소자본은 대재벌의 하청계열화되어 있어 금융, 세금, 무역, 원자재, 기술 등 모든 면에서 비할 수 없는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중소기업의 휴폐업, 도산, 몰락은 이러한 구조적 조건에서 항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급속하게 확대일로에 있는 휴폐업사태는 이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적합치 않다. 즉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호황과 한국경제의 변화와 중소기업휴폐업사태는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휴폐업이 양산되는 배경에는 최근 2년간에 걸쳐 비약적으로 성장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근저에 깔려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측은 노동자의 투쟁력, 단결력을 와해하고 고이윤을 올리기 위해 위장폐업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제 위장폐업이란 기업경영을 포기한 어 마산수출자유지역을 비롯한 외국 자본기업에서 공공연히 미 또는 자본철수의 협박이나, 공장자동화나 외주하청 확대를 통한 인원감축 등이 노동자에대한 탄압전술로 구사되고 있다. 결국 휴폐업, 위장폐업, 조업단축, 인원감축 등은 전체노동자에게 심업과 해고의 위협으로,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탄압전술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그간 노동자들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폐업에 직면했을때, 『경영악화로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자본측의 주장에 밀려 잘해야 몇개월분의 수당을 받으면 다행으로 여기며, 그후 를를이 흩어져 일거리를 찾아나서는게 일반적이었다. 노동자들은 현재 중소기업의 특성상 노동자의 단결력이 협소하고, 자본측의 주장에 대한 대항논리나 투쟁방향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조건 때문에 쉽게 굴복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88년초 멕스테크나 월드아트, 인천의 동신전자의 경우에는 「민주노조사수」「위장폐업철회」를 내걸고, 지역내 민주노조들 뿐만 아니라 민주최노동운동단체와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폐업을 철회시키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3. 맺음말

그후 하반기에 들어서서 각 지역에서 폐업공세가 빈발하기 시작하였다. 세창물산, 녹십자병원, 슈어프러덕츠, 신입섬유 등 민주노조협의회에 소속되어 역부족이었고, 소방차는 더이상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채 전경과 함께 인근 지역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산불이 서촌리와 신갈주변을 잇달는 고압전선에 이를 지경이되자 이것을 보다못한 학생들 수십여명이 손에 막대기와 나뭇가지를 들고 뒤엉을 무릅쓴채 산을 타기 시작했다. 걷잡을수 없던 불길도 학생들의 열의(?)로 점차 수그러들었고 그새서야 나타난 산림관계 공무원들은 불을 끄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너희들이 불을 냈으니 불을 다끄고 내려오라』고 말하며 시종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내려오는 학생들을 향해 다시 올라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학생들의 상황설명에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다.

다행히 부상을 입은 학생은 없었으나 불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한 소방차와 전경, 그리고 학생들이 절식사당할지 모르는 위험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산림관계자들의 의도는 책임을 전적으로 학생에게 전가하여 일반인에게 학생운동의 부정적인 시각의 파급효과를 노린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지난 88년 전·이구속 총궐기때 학생의 실수로 던져진 화염병이 할머니의 몸을 휩싸고 있었던 사진이 일간지 1면을 장식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당시 현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함과 동시에 이사실을 악용하여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 학생들을 좌경·용공폭도로 몰았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파악되는 이번사건 역시 본질적인 원인은 무시한채 현정권의 정치적 전략속에서 학생들을 폭도로만 매도하려함이 분명하다.

군부독재정권의 꼭둑각시로 전락해버린 전경과 공무원들은 그네의 아들·딸같은 학생들이 산에서 불을 끄는 동안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서화교 기자〉

사라져야할 권위와 무관심

학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함에도 그시대 상황에 따라 학원의 주인은 그범위를 달리한다.

봉건적 위계질서가 사회의 전반에서 소위 전리(眞理)로서 인정되어지던 얼마전까지만해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교육과 피교육, 시혜(施惠)와 수혜(受惠)의 관계로 규정지어졌다. 때문에 학원의 주인은 당연히 교육자로 인식되었고 피교육자는 지식을 전수받는 입장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교육자에 대한 절대복종과 숭배에 가까운 추앙까지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요되었다.

이러한 규정성은 민주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그발원지인 학원에서부터 봉건적 질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학원의 주인이 교육자라는 전리아닌 전리가 도전(?)을 받게 된다.

× × ×

그것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대의 총장선출문제이다.

××대 교수협의회는 지난3월 4일(토)중장후보를 선출하려 하였으나 총학생회, 대학원학생회, 조교협의회, 직원노조등 학내 각계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학내 각자치단체들이 교수협의회의 단독적인 총장선출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총장은 교수대표가 아니며 대학구성원 모두의 대표이므로 학내 각구성원의 참여속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교수들에 의해 거부되어지고 총장선출은 교수협의회의 변칙적인 투표에 의해 무사히(?)끝나고 말았다.

교수는 교육자이고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피교육자라는 교수들의 고정관념이 극적으로 나타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한편으로는 봉건적 질서가 강요되었던 시대에서 대학생활을 보낸 교수들이고 보면 학생들의 총장선출에 대한 참여요구를 「감히」란 단어로 거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도 느껴진다.

× × ×

불과 4년전만 해도 대학의 총장은 제단에서 임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통념(一般通念)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은 87년 각학교에서 교수협의회가 창립되면서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교수들은 교협을 통해 기존 제단에서 임명하던 총장에 대한 동의권을 요구했고 이는 당연한 요구임에도 당시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또, 그것이 1년후인 작년에는 그들을 위해 대학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총장선출의 문제에서부터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 × ×

교수는 교육자이고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피교육자라는 대학인의 굳어져 있는 관념으로는 총장을 교수들이 직선을 통해 선출하려는 아주 급진적인(?)요구들이 여러대학에서 나타났고 교수들의 신기를 통해 뽑힌 총장이 우리주위 대학에도 현재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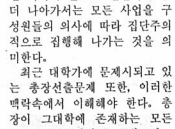
이렇게 총장선출에 대한 2년 동안의 변화를 나열하고 보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총장선출에 학생들의 참여요구가 그리 성급하게만은 느껴지지 않는다.

× × ×

어느 사회든 그사회의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주체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성원들의 관심과 자각은 그것의 당위성만을 설파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모든 구성원들이 주인으로서 자리할수 있는 체제와 공간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작게는 그사회의 대표를 구성원 각자의 손으로 선출하고 좀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업을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집단주의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대학가에 문제시되고 있는 총장선출문제 또한, 이러한 맥락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총장이 그대학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전정으로 대표하고



문 정 완

〈본보 편집장〉

교육과 피교육, 시혜와 수혜의 관계, 무원칙한 교권과 권위는 지양돼야

교육은 시혜(施惠)와 수혜(受惠)이상의 의미를 부여할수 없다.

때문에 무원칙한 교권과 권위로 허술히 무장한 교수의 갑옷은 벗겨져야 하고, 방관과 무관심으로 대학의 주인이길 스스로 부정하는 학생 역시 주인됨을 배워야 하는 대학에서 사라져야 한다.

대학이 이땅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자리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만이 대학을 우리 모두의 대학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까짓 권위나 무관심 따위는 던져 버릴 수 있지 않은가.

방화(放火)와 책임지자

가자의 눈

지난 3월30일(목)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진입로 3km지점에서 1시간 동안 큰 산불이 일어났다. 이 산불은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개최된 「광주학살·5공비리 노태우정권 퇴진과 민중생존권 지원을 위한 용·성지구 애국학생결의대회」집회를 마치고, 전경에 맞서 시위를 벌이던 중 한 학생이 전경에게 던진 화염병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근야산에 번지는 것에서 연유되었다.

학생들은 큰 불이 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싸움을 보류하고, 전경과 100m후방에 이미 와 있던 소방차에게 우선 불을 꺼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경도 소방차도 본체만체 하였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더이상 불길을 막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20여분간 방관하고 있던 소방차가 드디어 물줄기를 뿜어내어 끄기 시작했으나 이미 윗부분으로 번진 산불을 끄기에는

第4回 全國大學生論文懸賞公募

신한은행은 재일동포들의 정성어린 출자로 설립된 은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은행으로서 젊은이의 꿈과 야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읍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 2, 3회 공모때 대학생 여러분이 보여준 뜨거운 호응에 보답코자 금년에도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학생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 의욕에 불타는 전국 대학생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신한은행 개요

- 설립일 : 1982. 7. 7
- 은행장 : 김 재 윤
- 자본금 : 2,000억원
- 총 수 신 : 2조 8,475억원(1989. 2월말 현재)
- 영업점망 : 국내 64개소, 해외 2개소

공모요강

1. 자 격
   -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 공모논제
   1) 金融·資本市場의 開放戰略
   2) 不動産投機와 土地政策
   3) 勞使關係의 發展과 勞·使·政府의 責任
   4) 農業政策의 長期構想
3. 응모마감일
   - 1989. 6. 10(토) (우송시 당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4. 당선작발표
   - 1989. 7. 1(토)
   - 당선자 개별 통지 및 한국경제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5. 상 금
   - 최우수작 : 1편이내 300만원
   - 우 수 작 : 2편이내 각 100만원
   - 가 작 : 3편이내 각 50만원
   - 입 선 : 5편이내 각 20만원
6. 응모요강
   -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7~8매 정도의 소약본 첨부요)
   - 제 출 처 : 당행본점 기획조사부(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120) 및 지방소재 점포
7. 기 타
   - 응모자 제출시 연락처를 명기하고 본인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할 것
   - 접수된 논문은 일절 반환치 않음.
   - 학교명이 인쇄된 본점 기획조사부(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120) 및 지방소재 점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행 본점 기획조사부로 문의할 것 (전화번호 : 756-0505 교환 3041)

새싹의 꿈 키우는 보람 신한은행

江南에 새文化空間 映画전문 開封館誕生

大作과 名作만을 드리는 새名所

브로드웨이극장

最高의 名画·最高의 大作, 영동開封時代를 엽니다!

□文化의 거리 예술의 길목을 개척하는 「브로드웨이」는 모든 분야에 완벽을 이뤘읍니다.

- 70미리 대형스크린 영사기 「심프렉스」(SIMPLEX)를 설치 환상의 영상을 배출합니다.
- 국내유일의 스타디움식 객석설치
- 완벽한 입체음향 THX G·LUCAS SOUND SYSTEM시설
- 특급호텔에 비유할 고급휴게실과 넓은 주차장을 마련했읍니다.

★ "「브로드웨이극장」은 江南文化권 時代의 선두주자로 뽑니다" !

■THE SICILIAN■ 4월 1일 개봉

대부로 유명한 "마리오 푸조"의 베스트 소설을 영상화한 "시실리안」이 수입됐다. 「디어 헌터」「천국의 문」등을 연출한 "마이클 치미노"가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로렌티스트이며 이상주의자였던 줄리아노가 마피아 정계 성직자 공산주의자 등으로 활약하면서 아내와 헤어지고 결국 27세의 젊은 나이에 살해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슬픈 운명을 묘사했다.

(삼호 영화사 수입배급)

다음프로■ Young Guns ■

크리스토프케인 감독의 영화한 서부극 소재 "이밀리오 에스테베즈"의 88최신판 전설적인 무법자 "이밀리오 에스테베즈"의 재해석 허리우드2대 스타의 랑대부.

(현진 영화사 수입배급)

〈江南〉신사동사거리 大型개봉극장

70mm G·LUCAS SOUND THX SYSTEM DOLBY STEREO

좌석1,000석 시설극장

강남사거리 8분

□ 지하철3호선 신사역 ● □영동호텔 브로드웨이극장

현서기 학생회조직의 올바른 지향을 위하여

◇학생운동조직노선에 대한 일 검토

이 병 도
(동양·중국어4)

기층단위의 주체건설에서부터 학생조직은 구성돼야
대중정서에 부합하는 투쟁양식·집회문화창출이 시급

Ⅰ. 글을 들어가며

지금 학생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몇몇의 사람들만이 운동을 이야기하고 그들만에 의해서 학생운동이 대변되던 것은 지나간 시기의 일이다. 이제는 청년학생 모두가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야할 선봉대로, 또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갈 운명의 주인으로 나서는 때이다.

지금에 와서 심각하게 학생운동의 조직화 방도를 검토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학생운동의 그 발전적 요구에 따른 대중화에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일부에서 학생대중과는 동떨어진 채 선진활동가만의 카멜레온적 변신을 시도하는 조직개편은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현재, 각대학·과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전행되고 있는데 이는 불과 몇년사이에 이루어진 변화이다. 지난시기, 대중과의 연계가 이뤄졌던 학생운동이 각 기초단위 학생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것은 조직운동사에 있어 커다란 변화라 할수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학생운동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대중운동으로서 지니는 문제와 각조직노선이 가지는 폐해또한 지니고 있다.

이글에서는 학생운동조직화 방도를 대하는 관점과 올바른 조직사업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학생운동조직노선에 대한 개략적 고찰이 될것이며, 학생회의 주인인 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고민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Ⅱ. 조직노선에서 견지해야 할 관점

우선 조직노선은 무엇보다도 자주적 지향과 요구가 있는 각 성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은 구성하는 사람의 형편에 맞게 준비되어져야할 것이다. 사상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거창한 이름의 조직을 건설하는등의 조급한 사고는 조직형식주의에 다름아니다.

둘째로 조직을 정태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격하여야 한다. 조직은 이 서울지역의 대다수 대학에서 현재 취하고 있으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무엇보다 학생회노선의 정당함을 말할때도 실정에 맞지 않는 기계적 수용등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이제 그 올바른 극복대안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주적인 대중단체가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사무직 노동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회의 제문제에 대한 토론모임등이 그 구체적 실례가 되겠다.

둘째, 과학생회를 조직단위의 기초로서 강화하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각과를 기본으로 하는만큼, 과를 강화하는 것이 총학생회강화의 관건이던 를로 묶는다고 현재의 조직적 문제가 해결되지않음을 알아보았다.

Ⅳ. 학생회노선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학생회노선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다. 학생회가 학우들의 일상적인 이해와 요구뿐만 아니라 조국의 운명에 관한 청년학생의 임무에 대해서도 올바로 고민해야할 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진활동가를 대상으로한 조직적 강제와 교육이 소홀해지고, 전체 학생대중들의 자주적인 참여공간이 협소화 되는것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학생회를 중심으로한 공개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기동성있는 투쟁이 제때에 잘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대안으로 일부에서 선진적 학생만의 정치투쟁 조직을 따로구성하자는 견해가 있었는데 이에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진은 88년 8월13일 연대에서 있었던 전대협 2기발족식 장면

앞서 서술하였듯이 학생회는 학생대중의 일상적인 이해와 요구뿐만 아니라, 조국의 운명에 있어서도 주인으로 나서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첫째가는 역할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회의 위상을 애써 지위격하시켜 학생들의 생활적인 자치기구로 한정시키면서, 정치투쟁조직은 따로 내와야 한다는 정치적 대중조직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제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투쟁의 기동성의 문제이다. 이는 앞에 서술한바 있지만 투쟁의 주인인 각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관점이 결여되어있다 여겨진다. 투쟁의 기동성은 사람의 준비가 안된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선진적 학생을 따로모으지 않은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학생회자체와 분리된 조직에 집착하는 것보다 학생회에서 일하고있고, 일하고 자하는 사람의 수준과 사상의식 강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현재의 정치적 대중조직노선은 학생회강화에 복무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형태속에서는 매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생회와 정치적 대중조직의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학우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와 높은 애국적 의지를 가진 학우의 모임과의 관계로서 학생회가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대중조직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데에도 그 주의, 주장의 다기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그러한 조직노선의 무용함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상의 학생회 노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구성원의 사상적·조직적 준비부족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따로 선진적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대중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남보다 더 헌신하려는 사람들의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배려의 강화를 의미한다. 투쟁의 기동성은 학생회노선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데서 큰 문제로 나타났다. 그 해결방도는 학생회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사람을 준비하여, 사상의지고양을 위한 학습과 실제적인 투쟁에 임한 준비작업을 충실히 연구·조직하는 것였다.

마지막으로 투쟁의 대중화를 위한 투쟁양식, 집회문화, 투쟁조직의 건설을 잘해야 한다. 학생대중의 정서에 맞는 투쟁양식과 집회문화는 다시언급할 필요가 없을만큼 중요하다. 여기에서 투쟁조직에 대해 말하자면 기존에 특별위원회식의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과기층으로 부터 투쟁사업의 주체를 건설해내고 올게 집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학생대중들의 참여와 기층단위부터의 학습 투쟁사업준비가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학생회 노선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학생대중을 실질적으로 투쟁의 주인으로 세우는 학생회 강화의 방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이글은 학생운동을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씌여졌는데, 일반학생대중과 선진적 학생과의 밀접한 연계를 기본적인 관점에 두고 있다. 조직노선은 모든 학생대중이 투쟁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전제로 되지만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음을 다시 밝히는 바이다. 학생운동을 한다고 자부하는 선진적 학생들의 높은 정신·도덕적 풍모, 생활상의 모범, 투쟁에서의 헌신성등 사람의 변화(주체혁신)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학생운동 대중화 토대가 쌓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회 강화를 위해 선행해야할 사업은 구성원을 이루는 각각의 학생들에게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돕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에 둘 때 학생회노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알 림

지난 511호 5면에 게재된 「반제대중투쟁의 산역사-원산총파업」의 필자 김광운씨를 한신대 강사로 표기한 것은 본보의 오기(誤記)였기에, 이를 조선대 강사로 정정합니다. 아울러 필자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자〉

원전의 계승과 새로운 적용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입문」, 풀빛출판사펴냄

학생운동 대중화의 토대는 선진 학생이 생활속에서 투쟁의 헌신적 모범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데 기초한다.

현재 우리 사회 변혁운동을 둘러싸고 크게 두 부류의 이론이 팽팽하게 대립점을 형성하고 있다. 소위 사회구성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식민지반자본주의론으로 대표되는 경향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대표되는 경향이 그것이다. 물론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이론적 틀이 실천을 제약하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어 실천에 잘못 적용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들은 80년대 중반들어 불붙기 시작하면서 변혁운동권내에 국가론, 계급론, 전략전술론, 조직론 등에 있어서 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최근에는 학계에까지 논쟁이 번져 그야말로 논의의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활발한 논쟁의 이면에는 서구사회의 변혁운동에 관한 논쟁을 소개한 출판계의 부추김(?)도 있었던 듯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때 국내에 밀리반드와 플란차스의 논쟁이 소개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들이 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논쟁이 형성된 배경과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회현실 사이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그 논쟁 자체가 우리의 사회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87년 6월 민주화투쟁 이후의 일련의 변화과정과 함께 새로운 연구경향을 배태시켰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는 80년대초 이들 고전의 해설서들에 대한 고조된 관심과 비교해 볼일치는 연구에 있어서의 복고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이책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 현변혁운동에 대한 적절한 응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정통마르크시스트를 변별해내기는 무척 어렵다. 이미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지도 140년이 지나버렸고 그러한 시간의 흐름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이름들의 새로운 볼 때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시의 상황이 이들 원전을 섭취 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해설서들이 풍미했던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해설서들의 구체성과 현실유용성은 원전의 추상성과 상징성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사회현실과 역사의 상이함에서 오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의 해석과 적용상의 응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의 문제 못지 않게 이들 원전이 담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계승하여 현실에 적용하는 일 또한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전의 해설서들에 대한 중요성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을 논함에 있어서 당대일 뿐만 아니라 그들 후계자들에 있어서조차도 이에 대한 이론적 탑구가 대체로 비체계적이고 단편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치학의 문제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입문」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 책은 여섯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제1장)에서는 밀리반드 자신의 문제의식을 서술하고 있으며, 계급과 계급갈등(제2장)에는 변혁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혁명적 계급의식의 획득에 관한 문제틀, 그리고 이들의 변혁적 실천의 궁극적 대상이자 기존질서의 최종적 수호자인 국가의 형태와 성격에 관한 문제(제3,4장 구질서의 방어Ⅰ,Ⅱ), 노동계급의 정치적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문제로서 조직과 그 운용상의 문제(제5장 계급과 당), 혁명수행상의 전력노선에 관한 문제(제6장 개량과 혁명)등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이중에서 국가에 관한 내용은 그간 밀리반드-플란차스 논쟁의 소개과정에서 상당부분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고 또한 그러한 성과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보수대연합구도의 가능성이 현존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언제나 체제내 개량을 유도하는 세력과의 투쟁과정에서 개량노선과 혁명노선을 준별해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책의 마지막 장이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크다할 것이다.

한 재 방
〈출판기획가〉

소비자가 만든 20,000원대 구두

"자성인의 현명한 판단"

현명한 자성인임을 자부하는 대학생이라면, 합리적인 유통, 양심적인 경영방식으로 품질은 똑같으면서, 가격은 절반수준으로 공급하는 미스 미스터의 정당성을 이미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구두를 싼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읍니다.

첫째, 박리다매(薄利多賣)의 판매원칙으로 장기적인 기업이윤을 추구합니다.
"좋은 제품을 적은 이윤으로 많이 판매한다"는 박리다매의 판매 원칙으로 장기적인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미스 미스터 — 가격의 차이가 반드시 품질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미스 미스터는 많은 사람이 정당한 가격으로 좋은 구두를 신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둘째, 유통에서 오는 투자를 대폭 줄이고 그 이익만큼 소비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특정제품이 아닌 우리모두의 구두인 미스 미스터는 언제, 어디에서나 똑같은 제품,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매장의 통일화 및 효율적 운영으로 유통에서 오는 투자비를 대폭 줄이고, 그 이익만큼 소비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셋째, 세일(SALE)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미스 미스터는 소비자를 위해 소비자부담을 최소화한 가격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세일할 만큼의 가격여지가 없읍니다. 매장에 오셔서, 만족할만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미스 미스터의 품질력을 확인하십시오.

20,000원대구두 가격혁신

MISS·MR
MEN'S & LADIES' SHOES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한생명 63B/D13층

■본사 782-0221 ■서울 : ●영등 778-2157 ●롯데백화점/잠실점 415-8475 ●미도파백화점 774-7977 ●그랜드백화점 ●영등백화점 548-8037 ●한양소점/잠실점 418-9014 ●한양소점/압구정 546-7746 ●남영동 792-3625 ●종로 732-8803, 734-7733 ●초동 475-3000~4 ●강서 695-7330~4 ●여의도백화점 782-9553 ●창원 ●신림동 886-1313 ■지방 : ●천원 74-8084 ●신천점백화점 ●주안 427-5544 ●부평 ●수원 5-6126 ●안남 3-2611 ●월평 2-1562 ●안산 80-3678 ●원진 32-8086 ●부천점백화점 ●대전 ●천안 73-1311 ●의정부 2-6487 ●이천 33-3475 ●춘천 6-3733 ●안양 ●강릉 42-4279 ●원주 46-5909 ●속초 32-8020 ●태백 53-4377 ●청주 54-2700~2 ●충주 845-4366 ●대전 255-1141~2 ●대전롯데백화점 255-1801 ●대전백화점 255-4001

■논산 32-1209 ●천안로얄백화점 2-2511 ●온양 44-1771 ●당진 52-3773 ●부여 ●동아백화점 424-2754 ●동아소점 23-7074 ●대구백화점 ●대구월성소점 354-4142 ●구미 54-6484 ●포항백화점 75-5500 ●영주 33-1113 ●김천 31-0350 ●울진 2-3939 ●경산 84-1194 ●광주 4-6481~2 ●안동 3-0130 ●김해 2-2076 ●부산백화점 552-8249 ●남포동 ●광복점 ●마산 45-7880, 7890 ●마산신인백화점 93-5121 ●울산 45-7117 ●울산주리점 45-7117 ●우동 3-1817 ●장림 84-0989 ●주부점 ●장림 2-0361 ●진해 6-4774 ●의령 2-7403 ●고성 42-684 ●광주화니백화점 25-1767 ●광주호남이마트 25-2828 ●목포 43-0006 ●여수 62-7237 ●광양 761-1555 ●제주 52-9308

청년학생, 사회로 가는길

——— 각대학의 사회진출 연구 모임을 찾아서

청년학생의 사회진출은 개인적·고립적 차원이 아닌 집단적·체계적 고민속에서 해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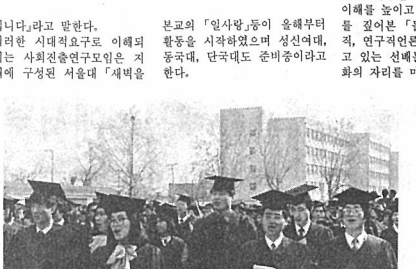
『사회진출의 바람직한 준비! 이것은 모든 청년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이며, 우리나라 청년학생들이 갖는 「민중운동의 교량자로서의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가 개인적·고립적으로 해소되어온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우리들은 청년학생의 「대중적 사회진출」을 고민하고 그의 집단적·체계적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임인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88년 9월16일 발족한 서울대 사회진출 연구모임 「새벽을 여는 사람들」소식지 창간에 실린 글의 일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인들은 4년의 대학생활을 마치게 되면 자의든 타의든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사회의 청년으로 진출해야 한다. 그렇기에 사회로의 진출은 청년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서지 않은 고민을 던지곤다.

기존에 있어 청년학생들에게 사회진출은 「운동」과 「진로」의 선택처럼 받아들여졌으며, 더욱이 「진로」는 자신의 생계유지수단으로 전락하고 자신의 적업은 창조성과 주체성이 거의 고려되지 못한채로 결정 되어졌다. 이러한 단편적 논리를 극복해 내고자 최근 사회진출문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본교 「일사랑」의 박희광(영어과)군은 『서울지역 노동자 수의 5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무·전문적·판매서비스직 노동자들 입니다. 이들이 지난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비약적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87년이후 결성된 노조의 80%가 바로 사무직, 전문직, 판매, 서비스직, 과학기술직, 연구직, 언론노조였다는 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각계각층의 대중들이 「주면 주는대로」와 「시키면 키키는대로」를 거부하고 직장과 삶터에서 사회의 민주화에 자주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이 청년학생들의 희망차고 자신감 넘쳐는 사회진출을 집단적·체계적으로 준비할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대적요구로 이해되어지는 사회진출연구모임은 지난해에 구성된 서울대 「새벽을 여는 사람들」, 고대의 「일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해오고 있고 현재는 성대의 「노동문제 연구소」, 건대의 「꿈일꾼」 연대의 「연세사회진출 연구회」, 그리고 본교의 「일사랑」등이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성신여대, 동국대, 단국대도 준비중이라고 한다.



▲대학인들은 학교를 졸업한뒤 사회의 청년으로

서울대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88년 1학기부터 준비를 거쳐 그해 9월16일 정식 동아리로 등록하고 학원내에서는 최초로 사회진출이라는 청년운동에 대한 활동들을 사회진출과 관련된 실문조사사업, 연구사업, 각계각층 사회운동의 소개와 그들의 투쟁에 대한 선전등의 방법으로 진행시켜 왔다.

구체적인 사업몇가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과학기술자 운동, 사무전문직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과 지역운동, 노동운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회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진출의 의미를 짚어본 「들불강좌」와 사무직, 연구직언론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과 격의없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던 「간담회」 등을 학내에서 학교밖에서는 졸업예정자들과 통하여 자신들이 진출하고자하는 분야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조사·파악하며, 요구되는 이론·실무적 소양들을 쌓을 수 있는 활동들이 있었다.

또한 고대 「일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10월 동아리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고대는 서울대와는 달리 사회진출문제와 더불어 노·학연대 사업도 연계시키고 있어 대상도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이 3, 4학년 예비역, 복학생들으로 한정시키는 반면, 고대는 신입생까지 포함하고 있다. 고대의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임시회장을 맡고 있는 김강민(법학과)군은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은 사회진출의 올바른 관점정립과 각단대나 과차원의 소모임을 조직하여 그속에서 올바른 사무직 노동자관을 심어주어 그 스스로가 「예비노동자」로서 주체적이고 자연스런 노·학연대를 이끌어 내는데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고대내에서는 소모임이 법과대학에 조직되어 있고, 이공대는 「과학과 인간」이라는 과학기술자로의 사회진출 모임에서 소모임을 조직하고 있어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서울대에서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활동간사로 일하고 있는 김병국(대학원)씨는 『사회진출 연구모임에 관한 일반 학우들의 관심은 매우 큽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중에 있었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저희 모임에 대하여 바람직한 모임이라는 대답이 61·3%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극히 한 일반학우들의 관심과 호응을 적절히 소화해내지 못하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중심주체들을 튼튼히 마련해 내지 못하는데서 의 역량을 강화할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모임이 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총학생회, 졸업준비 위원회, 복학생 협의회등과의 연대사업도 활발히 모색하여 사회에 대한 가장 기초적 인식에서 올바른 사회진출, 청년운동으로의 결합을 추구하고, 그속에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에 일익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종진 기자〉

갈라진 통일의 목소리

독자칼럼

방 은 주

〈점과·점의3〉

「사실은 신성하고 의견은 자유이다」(Facts are sacred, opinion is free)이 말은 C.P. scott」스콧트가 한 명구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다원성을 이야기하며, 사물의 양면성과 함께 논리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 확실히 하나의 사물을 완전하고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각적인 방면에서 살펴야 코끼리 다리만을 더듬고 기둥이라고 부르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있다.

일론 떠오르는 논리의 다양성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로마사회의 붕괴를 가져온 부정적 요인으로 본 반면 토인비는 오히려 로마사회를 건실공고하게 한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고 막스베버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금욕주의 정신에서 찾았는가 하면 브랜타노는 인간욕망의 개방측면에서 이를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자연계의 생존원칙을 약육강식으로 파악한 다윈과 상호부조의 원칙으로 파악한 크로포트킨 등이 있으며, 최근의 사례를 든다면 노무현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사실이 회자되어 소영웅주의니, 제도권내에서의 한계에서 나온 민중을 위한 충정이니 하며 설왕설래한 적이있다.

○ ○ ○

독재타도, 파쇼타도, 민중민주주의 정부수립등의 밑말에 무감각한 학생들도 익히 한번쯤은 들음직한 이름인, 문익환목사가 북한을 방문하였다. 아니라 다들까 이번에도 각 사회단체마다 각자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였다. 진정 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사회이며 상반된 견해가 서로 공존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점진적 방식으로 성장하는 체제이고, 이체제 안에서의 모든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공표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의견이 자유자재라 해서 전리가 자의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한가지 사실에 여러개의 사실로 변하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평가를 할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정확한 평가를 할 필요가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발표된, 문익환목사의 북한방문 사실에대한 각사회단체의 찬·반 성명서를 유의해보면서, 잠시 시계추를 뒤로 돌려보자. 1987년 4월13일 소위 4·13호헌조치가 발표된후 역시 각 사회단체는 제각기 자유럽게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상반된 성명서중 어느쪽을 더 옳다고 여기고 있는가.

중요 시국사건이면 으레히 등장하는 단체인 이북5도××××, 자유주의수호×××, 반공연맹××××, 등 이북5도 향민단체는 누구보다도, 이느 단체보다도 통일을 원하고 지않았는가.

역사라는 거대한 바다위에 떠있는 하나의 사실이 크면 클수록 평가나 의의가 세대의 변화와함께 바뀌고 있는데, 하물며 그 큰바다위에 떠 있지도 못하고 꺼져버린 얼마나 많은 작은 사실들이 있었는가.

항시 현재의 사실을 현재에 평가 할수 없고 오직 요청되는 것은 투철한 시대소명과 역사의식이라 하겠다. 비록 민주주의가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점진적 개혁을 원하다 해서, 뻔히 악인줄 알면서 대화와 타협을 내세워 점진적으로 없앨 필요가 있는가.

악은 그 자리서 가급적 빨리 없애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주지 않겠는가.

통일을 원한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면서, 자유주의체제수호를 원해서라면서, 억압받고 소외되어온 계층과 민주적 진보적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정부의 정치없는 자의적 통치가 싫어지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맞이한 지금, 「공공에 대한 봉사와 정치를 가장 명예스러운 직업으로 만들고 싶다」던 함프리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문익환목사의 방북에 대한 정부의 허구적 명분은 코끼리 다리만 더듬고 기둥이라 부르는 것과 같아"

『정주영씨는 우리나라가 6·25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가장 열심히 일한 분이란다』

국민학교 중퇴로, 살아오면서 안해본 일이 없다는 정주영씨. 반드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벽돌을 나르던 정주영씨. 그러던 그가 이제는 세계 50위안에 드는 대현대(大現代)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10원짜리 동전하나로 미국으로부터 선박 하청을 따내었고 백만노동자의 지배인이 되었다.

현대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막강하다. 현대그룹 근로자만도 백만이 넘고, 각 분야에 뻗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의 문어발을 자랑하는 현대이다. 이러한 것들이 현대의 당당함을 뒷바침해주고 있는 듯 현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엄청난 일들을 아주 당당히(?) 발휘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때 증인으로 출석한 정주영씨의 오만한 태도를 기억한다. 천하의 장세동이라고 하던 자조차 땀을 뻘뻘 흘리던 청문회가 정주영씨에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몰이불편해서 더 질문을 받을 수 없어요」라며 퇴장해 그가 일해재단에 기부한 돈에 대해서도 「내라니까 주지」라는 한마디로 일축해버렸다.

지난해 12월12일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일해재단 기부금에 현대의 책임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주영씨는 검은 중절모, 코트의 맞쑥한 차림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사람들은 「파연 정주영」이라고 말한다. 그에겐 정치적 문책도 전혀 없다. 모든 정치가, 언론인들이 그의 일거수 일투족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가 무법자같은데 자기네들끼리는 또 그렇지 않은가보다.

이쯤되면 이제 「돈」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주영씨가 그동의 돈만 없었던들 오늘날과 같은 무법자가 될수 있었을까? 솔직히 말해 이세상에서 정주영 무서워하는 자들의 이유는 바로 돈때문이다. 돈만 아니었다면 그가 어떻게 평양에 가도 국보법의 「국」자 하나 안걸렸겠는가? 문목사는 오기만 하면 잡겠다고 벼르고 있는 판인데도 말이다.

위증죄도 적용 안되고, 일간지들도 펜대 바로세우기를 마다하는 이유는 정주영씨가 꿔 남달리 흘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돈, 돈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물음을 제기하자. 정주영씨의 돈은 어디서 생겼는가?

지난 3월31일, 공권력은 1만 2천여명의 경찰을 동원, 울산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다. 닥치는대로 쏘고, 잡고, 두들기면서 38분만에 장악해버린 울산. 그 울산은 바로 정주영씨의 금고였고, 닥치는 대로 패고 두들긴 노동자들은 그의 주머니를 불리던 돈만드는 기계들이었다. 정주영씨의 오늘날의 위치는 현대그룹의 백만 노동자, 생계유지를 담보로 기계가 되어 일만하던 노동자들의 땀방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정주영씨가 이럴 수 있는가?

강제진압 이후 울산의 노동자들은 「죽을 수는 있어도 질수는 없다」는 각오가 더욱 드높다고 한다.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며 스크럼들을 더욱 강고히 짜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돈으로 안되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개월에 걸친 농성, 파업으로 그들의 생계가 엉망임은 TV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그들의 의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내도, 모마들도 아버지의 지향을 응원한다.

「돈으로 안되는 것」 정주영씨는 80평생에 처음으로 돈으로 안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정주영씨와 노동자들중 현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현대에 노조란 없다」던 정주영씨의 단호하던 결의가 이제는 자성의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 현대는 공사판 막노동하면서 돈벌겠다고 이를 갈던 한 청년의 자수성가한 보답이 아니다.

돈만으로는 안되는 것

정주영씨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떠한 탄압도 더이상은 성난 노동자들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주영씨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떠한 탄압과 협박도 더이상은 성난 노동자들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죄와 땀으로 만든 현대의 주인들은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인생 80이면 고희(古稀)라고 하여 세상의 전리를 알고 모든 것에 너그럽다고 하던데 ….

왕 창 진

〈동양·태국어4〉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1. 상환방법

구 분		상 환 기 간
단기학자금		대출후 1년이내
장 기 학자금	85. 8. 1. 이전대출과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3년이내
	85. 8. 1. 이후대출과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이내

상 환 방 법		
단 기 학자금	매월소정 납입기일에 대출원금의 균등분할액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입	
85.8.1 이전 (장기)	원금:거치기간(재학기간)경과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3개월,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납입	
85.8.1 이후 (장기)	원금:거치기간(재학기간)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대출후 매월납입	

주) 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신분으로 군복무예정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기한 연기절차를 취해시면 군복무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으며 연장후 군복무 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제때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 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학자금대출의 확대방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서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점을 심분 감안하시어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 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 민 은 행

학교직영 복지시설 이용안내

외대인의 복지증진과 소비활동보호, 나아가서는 교육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학교직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구내서점(외인글방)

미네르바 동산에 위치한 구내서점(외인글방)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적과 일반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읍니다.

가) 서적부

본 대학 전 교과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참고서(원서포함)는 물론 교양도서, 사회과학서적, 수험교재, 각종사전, 소설류, 주·월간지 및 기타도서를 비치하여 판매하고 있읍니다.

나) 문구부

각종 문구류, DP&E, 어학실습기기, 가방, 학생수첩등 학생들의 일상용품을 모두 준비하여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호한 품질의 상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읍니다.

(예) 사진:3인치×4인치=100원, 3인치×5인치=120원
불편:시중 100원→70원 판매

다) 회수권

시내 학생 회수권을 판매함

라) 영업시간(평일)08:30-19:00 (토요일)08:30-14:00

2) 학생식당

가) 식사부

학생식당은 최신식 주방시설을 갖추고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영양사와 조리사에 의해 엄선된 신선한 재료의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과 맛에 중점을 두어 식단을 작성 정성으로 제공하고 있읍니다.

-판매시간 및 가격

○ 백반(500원) 점심:11:30-13:30, 저녁:17:00-19:00
○ 라면(200원) 16:00-저녁 매식전까지
○ 짜장면·탕짬뽕(450원) 12:00-
○ 스낵류(500원) 13:30-

나) 매점부

각종 음료수, 다과류, 제과점빵등을 준비하고 대형 슈퍼마켓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읍니다.

다) 영업시간

(평일)10:00-18:30 (토요일)08:30-14:00

3) 학생 휴게실

학생회관 1층 각 도서관 뒤의 건물에 학생들의 휴식과 TV시청, 음악감상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여 각종 음료수, 다과류, 제과점빵, 김밥 등을 준비하고 대형 슈퍼마켓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읍니다.

-영업시간

(평일)08:30-17:30 (토요일)08:30-14:00

4) 잡화 판매점

미네르바 동산의 구내서점 옆에 잡화 판매점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품목을 할인 판매하고 있읍니다.

가) 안경코너

교직원·학생과 그 가족들의 시력보호를 위해 안경업계에서 오랜전통과 우수한 기술을 겸비한 '명동안경'이 본 대학내에 안경부를 개설하고 자동검안기 및 기타 기기를 설치하여 검안측정과 렌즈소독을 무료로 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렌즈에 필요한 약품은 30% 안경테, 안경렌즈는 40%를 할인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명동안경의 개설의원인 명동안과의원(전문의)에서는 학생 및 가족의 안과 진료시는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읍니다.

나) 화장품 코너

외대 여성을 위하여 국내 화장품 생산업체(아모레, 태평양, 유단한, 라미)의 상품을 취급하며 30%를 할인 판매하고, 여성을 위한 피부관리 강의도 계절마다 개최하고 있읍니다.

다) 여행사 코너

오랜 전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세방여행사'에서 여행안내소를 설치 학생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하고 있읍니다.

(여 행 안 내)

○ 국내관광:철도승차권, 국내선 항공권 구입, 수학여행, 신혼여행 전국 춘하추동 명승지 관광
○ 해외여행:유학상담, 국제선 항공권 구입, 학술답사, 아리랑 하이라이트, 아리랑조이
○ 외국인관광:국제회의, 단체·개인여행안내, 외국인 CITY TOUR
○ 관광버스 대여:최신형 고속버스 및 중고속관광버스 전세(45인승, 17인승)친절한 안내
○ 항공화물:수출입 대행, 통관업무, 해상화물 운송·화물포장

* 기타 문의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전담부서)
총무과 후생계(직)965-0433(구내)2018
구내서점(직)961-6939(구내)2432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교생 88년 2학기 아르바이트 현황

직업알선율 131.1%중, 사무보조원 직종 14.2%로 으뜸

절대부족한 공공기관의 아르바이트수당, 상향조정이 필요해

학생처가 밝힌 88학년도 2학기 부문별 본교생 직업알선 (아르바이트 취업)현황 통계에서, 지난 학기 아르바이트 취업률이 131.1%로 나타났다. 취업신청자 1천2백15명중 알선건이 총1천5백93건으로 밝혀진 이번 아르바이트취업율은 88년 1학기의 86.4%보다 상승했지만, 이는 취업자수가 1백15명 증가한데 비해 총희망자는 오히려 494명이 감소한, 명목상승률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직종별 아르바이트취업분포를 보면 사무보조원이 14·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취로사업, 8·9%, 홍보요원 7·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생들의 취업방법은 아르바이트 알선기관인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은행을 통하거나, 혹은 기업에서 직접 학교측에 요청해오면 이를 학생처에서 공고화해서 공고를 보고 자원한 학생중 적격학생을 선출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아르바이트 보수는, 일반기업체및 은행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7~8천원선인데 비해, 관공서의 경우는 수 학기제 5천5백원에서 변동이 없어 불균등하고 노동한만큼 지급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아르바이트수당,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서울에 위치한 기업체의 학기중 취업이, 시간·거리상 제한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주로 방학중에서만 아르바이트제공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영은 학생처아르바이트계 담당자는 『광주·이천 등지에서 요청되는 인력을 수용할 자체창구가 별도로 개설되야 한다』며, 지난학기 총신청자수 감소에 더 많은 취업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수있도록 학생들이 학교공식창구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대다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반해 이

◇본교 직종별 부업 알선율

직종	도서정리	청소	식당종사	사무보조	조사	거리질서	방범	안내	숙직·경비	계
직종별 인원 / 총인원 (%)	1.3%	0%	1.9%	14.2%	4.6%	6.8%	3.0%	3.6%	0.4%	
직종	취로사업	행락질서계도	공사장기사보조	홍보	판매	편집.교정	학습연구보조	기타		100%
직종별 인원 / 총인원 (%)	8.9%	0%	0.2%	7.3%	4.2%	0.8%	0.2%	42.6%		

이의극복을 위해 기업체및 알선기관에 본교를 알리는 홍보 작업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지원금보조도 필요만큼 중대되야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표기관인 학생회측도 졸업생취업 못지않게 재학생의 부업알선에 관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사업준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 우리나라 전체대학생중 12~3%정도의 적은인원만이 수용하기 위한 학교측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점도 지적된다.

공식창구를 이용한 아르바이트 제공을 받고 있다는 통계를 볼때, 최근 사회문제시되는 학생들의 음성적부업등의 문제도 여기에서 요인된것이라 볼수있다. 이제 당국및 기업체의 학생인력 활용에 관심확대는 물론, 현실적 수준으로의 수당지급, 그리고 공식알선기관의 활성화작업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창섭 기자〉

「노퇴진위한 동총련 결의대회」

지난31일 경희대에서 8백여명 참가

「국민기만 파쇼폭거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동부지구 총학생회연합 결의대회」가 본교 및 경희대, 한양대등 동부지구 7개교 학생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월31일(금)오후3시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본교 총학생회장 정계원군(동양·일어4)은 문익환목사의 방북과 관련 「문목사의 통일에 대한 열의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려는 미·노태우독재는 분단의 주범자이고 통일의 반대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조국통일 가로막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30분여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에앞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2시 본관앞 집입로에서 1백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동총련결의대회를 위한 출정식을 가졌다.

현대파업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 열려

현대중공업 파업노동자 생활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이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주최로 지난 3월31일(금)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에서 열렸다.

파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노조원들에게 물적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이날 찻집은 오전11시부터 오후8시까지 진행되었으며 현대노조파업에 관한 비디오도 상영되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동아리연합회장 이환열군(동양·일어4)은 『찻집에서 나온 수익금과 교내에서 모금된 돈은 노조방문시 전달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모금함과 책자판매를 통한 기금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88, 후기졸업예정자 졸업시험일정발표

88학년도 용인캠퍼스 후기졸업예정자 졸업시험 응시원서 제출기간이 어제부터 오는4월7일(금)까지로 확정되었다.

교무처 발표에 따르면 불어과와 화학과를 제외한 동·서양어문대, 자연과학대의 일반 교과목 시험이 4월17일(월), 언어실습, 회화 시험이 18일(화)이며 응시원서는해당 학과장실에서 교부, 제출된다.

또한, 불어과와 화학과, 인문대, 사회과학대의 졸업논문제출마감일이 4월26일(수)까지이며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2벽자 원고지 1백매 이상작성돼야한다.

한편, 졸업시험과 논문이 통과된 학생이라도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시험과 논문은 무효처리 된다.

이사람

박 희 정

〈용인캠퍼스 여학생 기숙사 사감〉

『처음엔 사감의 역할이나 위상같은것이 생소한 상태여서 무척 부담이 컸습니다.』

지난 3월2일 새로 단장된 용인캠퍼스 여학생기숙사에 초대사감을 맡은 박희정사감(아프리카어과 시간강사)은 이렇게 그때의 심정을 말한다.

본교 아프리카어과를 1회로 졸업하고 현재 동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박사감은 본교에 여학생기숙사가 처음 생김에따라 기숙사완성 전부터 타대학 기숙사의 운영실태와 시설·규율등 기숙사생활전반을 사전파악하여 기숙사 운영에 많은 참고를 했다고 밝힌다.

기숙사생활의 가장기본적인 생활규칙 설정에 있어서는 민주적·합리적원칙을 준수했다며 「감시와 통제보다는 잦은 대화와 정성·관심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현재 여학생기숙사는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학과와 학년의 격절한 배치로 한 방에 4명씩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각 방마다 방장을 두고 주마다 방장회의를 열어 기숙사생활의 불편함, 건의사항등 학생들의 세세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박사감은 본교 재학시절 힘든 객지생활을 경험한 선배로 누구보다도 집을 떠나있는 학생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집대생활에 적응을 못한 학생도 있고, 신입생인 경우 때일 밤 집생각에 우는 학생들도 있어 미흡이라는 한계를 넘어 자상한 어머니 구실도 해주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기숙사 사감을 맡고 난 후에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연구시간이 부족하다는 박교수는 「심지어 새벽2시까지도 잠을 못이뤄 고민을 이야기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어 피곤하지만,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서적인 위안이 돼줄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함께 이야기하고 격려를해주고 있다.』고 한다.

자칫 개인적이기 쉬운 대학생활에서 기숙사라는 공동체를 통해 얻을수 있는 것이 많다는 박교수는 되도록 남는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인생을 값지게 하는데에 몰두하길 바라며「자신만의 행복을 위하기보다 여러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가질수 있는 대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않는다. 「B사감과 러브레터」에서 처럼 권위적이고 통제, 감독의 역할로만 인식되어진 사감의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구시대적 산물이었다.』는 박사감의 말에서 때로는 언니와 같은 친근함과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자상함과 엄격함을 겸비한 사감의 모습을 그려본다.

〈노희원기자〉

용인, 「자주·민주·통일 특위」 발족

"완전한자주·민주위해연합전선구축 필요"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애국학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3월28일 (화)오후2시 어문학관앞 해방광장에서 총·부학생회장, 각 단대학생회장등 2백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 되었다.

역대 특위장 소개, 신·구 특위장 이·취임식, 해무리 노래 발표등으로 진행된 이날 발족식에서 전(前)특위 위원장 백인규군(사회·경정4)은 「지난해 특위는 전체 왕산 학우가 동참하지 못한 투쟁체였다.」라고 특위활동 평가·반성한후 「오늘 발족된 특위가 5천 왕산인의 결집체로 발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임 특위 위원장 이병구군(사회·무역4)은 출사표를 통해 「미제와 노태우 처단을 위한 애국학생들의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될수록 이땅의 자주·민주화는 앞당겨질 것」이라며 「식민지 땅의 민족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청년학도가 앞장서 범민주연합전선을 구축하자」고 역설했다. 집회후 학생들은 진입로에서 시위를 막는 경찰에 맞서 화염병 1천여개와 돌을 던지며 2시간여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또한, 특위 위원장 이군을 포함 본교생 1백여명은 지난 3월30일(목)오후 2시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용성총련」주최로 열린「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민주노조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용인·성남지역 애국학생 결의대회」에 참석,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악법, 선법으로 부활

○…만인앞에 평등해야 할 법이 물상식한 자들에 의해 자의해석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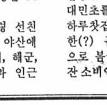
돈땔아 백있는 정회장의 「이른것」방북은 절대군주시대에 있었던 통치행위의 차원이 있다고 옹호하는 자들이, 돈이 없이 민주며 통일을 외쳤던 문목사의 방북에는 「사전교섭(?)」이 없었던 것을 이유로 「무례한것」이라며 잡입죄, 탈출죄로 구속처리할 방침이라고.

재력에는 구래의 악법도 선법(善法)으로 부활되는 이판에 더욱 날고 뛸 국가보안법 남용에 크로니클자 극히 우려되는바.

○…며칠전 이문벌 홀산들이 짓은양말을 걸어놓고 딸리기에 분주해(?),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교내 재배치 공사로 이곳저곳 땅을 파헤쳐 울퉁불퉁한 구덩이가 생기고 얼마전 내린 비로 흙탕물이 고여, 가로등도 자고(?) 있는 발랜 지나가는 홀산들이 흙탕물에 빠지기가 일쑤라고.

학교 당국 어르신네들, 공사가 끝날때까지 비올것을 대비해 아예 학교안에 세탁소를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길 정리와 가로등 설치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사(事).



○…모든 집회에 「초기강경진압」, 「원천봉쇄」로 진가를 발휘하던 노공권력이 1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 산불까지 원천봉쇄해 민초사랑을 보였다고 자랑.

사연인즉, 현직대통령 선친 무덤으로부터 한참 먼 야산에 산불이 나자, 지방관리, 해군, 산림청, 경찰의 헬기와 인근주민 4백여명까지 동원, 산불 초기강경진압에 총력을 다했다는 것.

왕처럼 접대받은 백담사주인의 선친이나, 산불에 헬기가지 동원시키는 지극한(?) 효성의 효자를 둔 선친이 가시방석에 누워 있을것을 생각하니 크로니클자 그저 안타까울 뿐.

○…따스한 남도(南都) 을산에 공비토벌 작전을 발불케하는 민초탄압 작전이 실시됨에도 소식접하는 홀산들 모습은 천차만별이라.

군함, 헬기까지 동원시킨 합동군사작전으로 진압된 현대민초를 돕기위해 모홀산들 하루찻집을 열었다던데, 민궁한(?) 홀산들 MT비 기친원으로 봅돕이는 즐기면서 차한잔 소비랜 근검절약의 생색만.

4월춘풍이 마음을 태탕케 한다지만 매콤새벌에 의해 탄압당하는 민초와 함께 해야할 홀산들 정신마저 태탕해선 안될사(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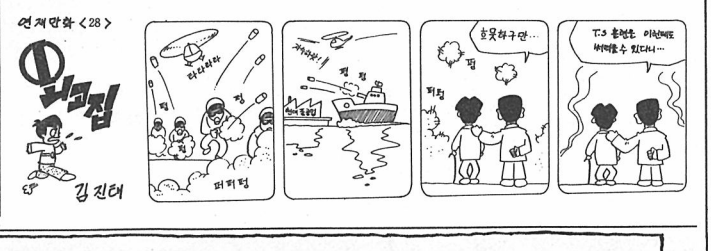
○…며칠전 왕산골 시위도중, 백골단과 타협한 유력 홀산들 부분파업을 결의(?) 시위행정이 일부 마비되었다고.

사연인즉, 진입로 시위가 야산 논두렁시위로 확산돼 산위에서 유격전(?)을 벌이던 수십명의 백골단과 홀산들이 논두렁타기에 지친나머지 휴전협상을 하고 대치, 팔씨움만을 치열하게(?) 전개해 화염병 불야성(?)을 이룬 진입로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시위홀산님네들, 개××만 부르짖지 말고, 백골단은 시위중 가장 먼저 검하는 선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앞.

부분파업된 시위

연재만화 〈28〉



용성동협 건준위 5일, 일일찻집 예정

「용인·성남지역 동아리연합회협의회 건설준비 위원회」는 오는 4월5일(수)경희대앞 「다사랑 까페」에서 일일찻집을 열고 각 대학 동아리들의 모임시간을 갖는다.

연합동아리 (각동아리별 조직체 건설을 위해)오전11시부터 2시간씩 체육, 종교, 학술, 공예(공연·예술), 봉사 분과의 동아리 시간이 마련되는 이번 일일찻집의 수익금은 신문발간사업 등 건준위 준비금과 성남지역 파업노동자 지원금으로 쓰이게 된다.

태국어과 심포지엄 「해방정국과 4·3봉기」

동양어문대 태국어과 학술부 주최 심포지엄이 오늘(4일)오후 5시 교양학관 301호에서 「해방정국과 4·3 제주도 민중봉기」를 주제로 개최된다.

오늘 심포지엄은 4·3봉기 41주년을 맞아 제주도 민중봉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적 재조명을 위해 열린다.

움직일

〈영화상영안내〉

◇서울캠퍼스

-시청각 비디오룸(2202호)

●기간:4월3일(월)~4월7일(금)

▲「백남준 비디오예술(Video Art)- 바이바이 키플링(Bye Bye Kipling)」100분소요-매일 오전 10시

▲「남과여(Un homme et une femme)」93분 소요-월·수·금2시/화·목5시

▲「고릴라(Raw Deal)」91분소요-월·수·금5시/화·목2시

◇용인캠퍼스

-어문학관 영사실(1412호)

▲4월4일(화): 오후1시30분 「이프(If)」

▲4월6일(목): 오후1시30분 「브로우 업(Blow-up)」

▲4월7일(금): 오후1시30분 「미션(Mission)」

▲4월10일(월): 오후1시30분 「런 어웨이 아웃(Run away out)」

비둘기 칠판

각종모임, 전시회, 축하사연, 분실물…외대학보가 마련한「비둘기 칠판」은 여러분들의 알리고 싶은 자잘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알리고 싶은 내용을 매주 월요일까지 외대학보 학생기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십시요.

제출처:서울-학생회관 203호
전화:965-7048(직통)
교환:2152
용인-학생회관212호
(교환전화:2112)

작은 오케스트라와의 만남

용인캠퍼스 고전기타반에서는 신입생을 위한 연주회를 갖습니다, 4월17일 대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많은 경청을 바랍니다,

원어연극을 상연합니다

용인캠퍼스 서반아어과 원어연극반에서는 「피의 결혼」을 대강당에서 4월 18일 공연할 예정입니다.

동문회를 알립니다.

경문고(서울)-4월7일(금)5시
상징탑 회비:3천원
안나오면 절단낼꺼!

모여라! 영파여고(용인)
4월7일(금)5시반.
학생회관 밥먹는곳 2천원가지고.

서울여고(서울)-4월7일(금)5시.
휘경역 가는 길(그레이스)-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잠실(서울)-4월6일(목)5시
M·T.예비모임 대학원 1층 로비
회비6천원.

충주고가 M·T.갑니다.
4월7일 3시
(분수대에서 모여 청평으로!)
회비6천원.

성동고(서울)-4월5일오전11시30분
24회 김의한 선배님 결혼축하
일단 깡통에서 동궁타운연회장으로

살아춤추는 "노동해방"을 위해

노동해방과 건강한 노동자문화 건설에 기여 본질적 모순파악 위한 과학적 사상 견지해야

문화사론

노 정 문

〈문학평론가〉

Ⅰ. 들어가는 말

89년에 들어서 노동자 계급을 상대로 한 잡지들이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는 것은 출판이나 언론부문에서 아주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기존언론매체가 지닌 한계를 뛰어 넘어 노동자계급의 성장에 큰 힘이 된다는 의미에서도 이땅의 노동자계급에게는 무척 다행한 일이다.

들리기 보건데 —물론 현재 발간되고 있는 중앙의 일간지나 지방 일간지의 한면만을 훑어보는것으로도 족하지만— 군사독재정권의 개량화 술책과 언론재벌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 이룩되어진 남한의 언론타락사는 철저하게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외면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에 대한 몰이해와 악의적 선전을 등에 업고 중요한 정치적 고비고비에 정권의 민중탄압이 자행되어 온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땅의 민중들, 특히 노동자계급으로 대표되는 변혁주도 세력의 성장은 이러한 인론매체의 한계를 더 이상 자신들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남겨두지 않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식을 버릴 수 없는 매체를 손꼽아 기다렸으며 이제 그것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이런 의미에서 남한 새력판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60년대 외래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한 남한의 예속경제는 저농산물가격 정책과 노동력확보를 위한 농촌수탈 정책, 이를 통한 노동자 계급의 착취를 기반으로 확장됐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성장은 마틈아난 노동자계급의 성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권은 부실한 자신들의 기반을 축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등을 뒷받침 해주는 자본가 계급의 요구와 야합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억압했다. 그것은 정치군인과 경찰을 이용한 물리적 탄압에만 국한되어 진행되지 않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뇌수를 마비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도 극심하게 자행됐었다. 유신 정권 말기에 전행된 일간지기자의 대량해직 사태, 뒤이어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의 언론통폐합은 언론지를 독점체일화 했고 자신의 이익옹호에 급급한 언론매체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이를 틈탄 독점 자본가들은 전 남한을 짓밟고 다녔다.

Ⅱ.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에 대한 배판

이런 시기에 등장한 것이 지학신문으로 대표되는 비합법문건과 합법영역의 계간지 등이었다. 비합법 문건은 정치적인 요구를 담고 있어서 극심하게 자행되는 정권의 탄압을 피해 몇몇 소수에게만 읽혀지는 한계점을 뚫고 함께 고민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교과서의 친미·반공·반민중성을 폭로하고 대학의 주체로 서기 위한 실천적방안, 올바른 세계관·인생관정립문제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백산피냄 값 4천2백원〉

◇노동자 잡지 출간 활성화의 배경과 경향

이런 때에 노동자계급의 사상을 견지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표방하고 나온 최근의 노동자 잡지가 무려 10여종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 땅의 노동자계급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웅변적으로 대변한다. 그리고 이들 매체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에 출간되기 시작한 점 또한 이를 증명한다.

이들 노동자매체들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정치전문지, 문학매체, 종합교양지, 그리고 노동자신문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청춘」(87) 「햇살」(87) 「새벽」(88) 「민주노동」(84년이후 발간되었던 부정기 간행물인 「민주노동」의 복간호) 그리고 「노동자와 정치」(「변혁과 통일」의 복간호)가 노동자계급을 위한 정치전문지에 속한다. 이들 정치전문지는 노동자계급이 정치, 경제, 사회의 부문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이론적으로 해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교양지로는 올해 새로 선을 보인 월간 「노동자」와 「노동자문화」를 들 수 있으며, 문예지로는 「노동해방문학」(89)과 「노동문학」(89)을 들 수 있다.

이들 매체들의 의의는 우선 부르조아매체들의 오염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보호하며 노동해방과 건강한 노동자문화건설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한 변혁운동에 복무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권안보적 차원의 반공이데올로기, 오염된 제국주의 문화, 민중운동에 대한 악의적 선전을 일삼는 재벌언론에 의해 많이 무디어져 있는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이들 매체는 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매체는 새로운 사회의 이념을 노동자대중에게 널리 공유케하여 노동자 문화건설에 복무할 수 있다. 계급에 의한 계급의 지배, 그 과정에서 굴절, 왜곡되어지는 수많은 근로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예비작업을 담당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사상을 광범위 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Ⅳ. 맺음말

이들 매체가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몇몇 매체들에서 이러한 점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남한의 구조적 모순이 무엇인지, 그 깊은 본질에서 부터 모순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사상의 견지이다. 이것은 궁극적인 계급해방을 목표로하는 노동자계급의 시각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즉자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요구, 즉 정치의식화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 당파성을 굳건히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만 우리 노동자계급은 동지적 우의를 가지고 이들 매체를 자신들의 사상적 이정표로 삼을 수 있으며, 남한변혁운동에 매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의 쓰임새 (160) 여가

〈여가가 남겨둔요-일상의 대화중에서〉

「여가」와 「남다」는 의미가 중복된 표현으로 「여가가 있거든요」로 사용하는게 옳다. 이와 유사한 의미의 중복은 우리의 언술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외가집」에서 「가(家), 집」, 「해변가」에서 「변(邊), 가」, 「일요일날」에서 「일(日), 날」등이 그것이며, 「새로운 뉴 스타가 등장했다」에서는 고유어와 영어의 중복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반미(反美)의 거리에서

◇ 외대연극회 42회 정기공연「국어로는…」를 보고

문예산책

허울좋은 「낭만」을 가슴에 품고 대학에 들어온 이들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내에 쓴쓸하고도 안타까운 현실을 체험하게 된다.

「국어로는 아름다운 나라」

외대연극회 42회 정기공연으로 선보인 이번 작품은 민족해방, 반미 등의 뼈아픈 현실을 목격하게 해 주는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풍물패의 「어루 액이야, 어기영차 액이로구나」하는 서곡의 울림은 암전과, 「이곳은 반미의 거리요」라는 대사로 이어져 극의 전반적 내용을 암시한다. 극은 8·15해방 직후 「인민위원회」를 통해 토지를 분배받게 되어 기뻐하는 농민들에게 「미군정」이라는 새로운 침략자가 등장, 토지를 몰수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쇄적 사건들로 구성된다.

우방으로 인식했던 미국의 강압적 행정과 부당한 대우에 분개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 획득을 위해 투쟁의 대오로 나서는 농민들의 모습이 숙연하리만큼 감동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번 공연은 60년대 중반 탈춤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마당극, 민족극운동으로 발전한 오늘날의 연극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수있다. 현장공연도 가능할 만큼 「열린마당」을 구성하고 있으며, 풍일을 향하여 반미의 근본 인식을 조명하고 있는등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작은 개념으로서의 총체극 형식을 띄고 있다. 「자/해방이다」를 외치며, 종겁게 노는 풍물패의 추임은 마당극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공연을 포함, 세번의 정기공연을 연속해서 창작극으로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외대연극회의 의욕과 노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굳이 이번 작품에서 아쉬운점을 찾는다면 정기공연이라는 이름에 비해 극의 규모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저놈들은 인두겁을 쓴 늑대구만요. 이 땅은 우리 조선사람의 땅이제, 일본놈들하고 미국놈들 땅은 죽어도 아니구만요」하는 병갑의 절규와 미군의 총에 맞아 쓰러진 오빠의 모습을 보고 애절하게 「형아야, 형아야/」외쳐대는 철모르는 용순의 대사는 관객의 시선을 한반도에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미국의 횡포에 집중시키게 한다.

「국어로는 아름다운 나라」, 작품명의 비아냥거림대로, 말로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美國)은 결코 우리에게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다.

의대 연극회의 이번 공연은 이땅 허리잘린 한반도, 45년 해방직후 두세달 빼고는 해방된적이 없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학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되새기게 해주었다.

해방직후 미국에 대한 민족감정 표현
총체극형식, 열린마당 구성 돋보여

구 자 민

〈서문·영어3〉

신간소개

하얀집의 왕

—홍인표 지음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수감된 정치범들의 처절한 투쟁기이며 충격적인 보고서로 현직 교도관에 의해 쓰여졌다.

하얀집으로 표현되는 교도소내에, 전제군주로 군림하는 교도소장과 이에맞서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양심수들과의 마찰을 통해 교도행정의 비민주성과 비리등을 낱낱이 폭로하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 시대의 죄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창작과비평사 값 4천5백원〉

청년이서야 조국이 산다

—조진경 엮음

이책은 우리가 20여년간 주입받아온 진리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신입생들의 생각의 발전을 돕고 함께 고민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단신

시민K

—연희단거리패 주최

제1회 동숭연극제 출품작 「시민K」가 4월4일(화)부터 4월24(월)까지 동숭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이극은 부산 「연희단 거리패」의 창작작품으로, 다양한 계층의 인물을 등장시켜 80년대 언론통폐합, 보도지침등의 생활속에서 지식인이 겪는 고뇌와 올바른 언론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연락및 문의처:동숭아트센터 741—3391

옛날 옛날에

이기연(한국문화운동연구소 연구위원)

〈3〉이왕 죽을바에야

옛날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하나 살았거딩, 장부에 기록된 각종제산 밭고도 돌방을다이야에 금두꺼비, 수천만원짜리 밍크 덜개옷, 금술잔, 금수저, 등등 없는 게 없었지.

헌데 이 부자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학이 구름 위를 나는 그림이 든 백자 술병을 제일 좋아했어. 그 술병은 가보로 내려오는 것이라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자의 「정통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라는 게야. 아, 부자 중에서도 「삐대있는 부자」라는데 쌍놈들이야 꽉 죽어줘야지 뭐 별 수 있었겠어? 부자는 끼니때 마다 이 술병에 술을 담아 반주로 들며 부자의 내력을 자랑하는 걸 낙으로 삼았지.

그에게는 이런 술병이 또 하나 있었어. 신선이 호랑이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그림이 새겨진 청자 술병인데, 백자 술병보다 더 오래되고, 또 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경물, 저—엉말 귀중한 거래. 그래서 부자는 「술병 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집안에 공포했는데, 내용인즉, 이 술병에 만약 이상이 생기면 그렇게 만든 사람은 죽음을 면치못한다는 것이야.

헌데, 어느날 여종이 부엌에서 설겆이를 하며 그 술병을 들어 조심조심 씻고 있는데, 뜻밖에 쥐 한마리가 가랭이 사이로 기어오르는 게야, 깜짝놀라 고함을 지르며 펄쩍 뛰다가 그만 술병을 부뚜막에 떨어뜨렸지 뭐야. 여종은 새파랗게 질려 숨도 못 쉬다가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

낮잠자던 부자 마누라가 통곡소리에 깜짝놀라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왔어.

「무슨 일이냐? 아이구 이런 이런, 이런 요망한것, 이 일을 어쩐답/」

「저는 이제 죽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종은 흑흑 느껴울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 그러자 부자 마누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뜻밖의 말을 하는게야.

「태어나면서 부터 우리집을 위해 착실히 일해온 너를 죽여서야 되겠니. 죽음만은 면케해주마.」

부자 마누라가 이렇을 때 물에 빠져 다죽게된걸 여종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적이 있었거딩. 그 생각이 났던가봐.

이윽고 저녁상을 차릴 때가 되었지. 여종이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부자마누라가 술병을 하나 갖고 나왔어. 깊이 간수해 두었던 바로 그 제일 좋은 청자술병이었어. 여종이 저녁상을 방으로 들고 들어가자, 마누라가 부자에게 술을 따랐지. 그러자 부자가 벌컥 화를 내는 거야.

「잠깐, 왜 이 술병을 함부로 내어왔소? 늘 쓰고있는 술병도 이보다 못하지는 않지만, 이건 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술병 아니요?」

「대감, 너무 노여워마세요. 그 술병은 제가 잘못해, 그만 못쓰게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라구? 그게 어떤 건데, 아무리 내 마누라라 하더라도 그냥 두지 못해/」

부자가 마누라를 벌하겠다고 고래고래 악을 쓰자 여종은 그대로 엎드려있을 수가 없었어.

「대감마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건 제가 깨뜨렸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게 어쩌된거냣?」

「쥐가 기어올라 놀라서 그만……」

「네 이년, 이 요망한 년, 그게 사실이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대감마님, 천네 죽음을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여종은 이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들고 일어났어. 그러고는 말야, 아 글쎄, 부자의 상에 놓여있는 그 제일 좋은 청자술병을 들어 방바닥에 힘차게 메어붙이는게 아니겠어. 부자의 「정통성」을 입증해줄 마지막 증거물, 그 청자 술병은 그만 박살이 나고 말았지. 그 바람에 놀란 건 대감만이 아니었어. 옆에있던 대감 부인도, 또 방문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모여있던 종놈들도 입을 딱 벌리고 벌벌 떨었지. 실로 얼린데 덜친골이 되고 만 거야, 더구나 첫번 째와는 달리 이번엔 일부러 깬 거 아냐, 왜 그랬을까? 응?

여종은 담담하고 결연하게 말했어.

「전 기왕 죽을 몸입니다. 하나를 깨나 두개를 깨나 죽기는 매일반이지요. 헌데 그 술병이 남아있으면 애꿎은 귀한 목숨을 또 하나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술병이 없어진다면 「술병 보위에 관한 특별법」도 없어지겠지요!」

방문 밖에서 숨죽이던 종놈들이 겁없이 질러대는 함성이 터졌어.

「와—!!!」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어.

人間·技術·未來

1. 募集人員
○○○명

2. 募集部門

部門	募集學科
人文系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법학, 행정학, 기타 인문사회계
理工系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화학, 전자계산학, 금속공학, 산업공학, 물리학, 건축공학, 재료공학

3. 応試資格
가. 1989년 9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나. 196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모집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4. 提出書類
가. 입사지원서(당그를 소정양식에 명함판 사진부착)…2통
나.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1통

5. 銓衡方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전형

6. 面接銓衡日時 및 場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願書交付 및 接受
가. 교부 및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럭키금성 트윈타워 동관 럭키금성 인력관리위원회 전화 : 787-2060
나. 교부 및 접수기간 : '89년 4월 10일(월)~4월 18일(화) 09 : 00~17 : 00(공휴일도 접수함)

8. 其他
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국가보훈대상자는 중빙서류 첨부시 관계법령에 의한 특전 부여함.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부 및 접수처로 문의바람.

1989. 4.

럭키금성
인력관리위원회